

3월 15일, 수도권-충남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석탄발전 가동 축소,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등 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장관, 마포 자원회수시설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점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상황이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를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내일까지 수도권·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µg/m³를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µg/m³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3월 15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오늘 인천과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 총 34기 중 1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23기는 상한계약(출력 80% 제한)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1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차량 신청차량 등도 포함되며, 수도권과 충남 지역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는 조업·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

침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 마포 자원회수시설 방문하여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인천시에 위치한 환경위성센터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PM2.5) 발생 및 이동경로와 위성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양천구 운행차 현장점검현장,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하철 인천시청역, 경기도 환경국장은 팽택 에코센터, 충남 기후환경국장은 천안시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5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µg/m³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라면서, "해당 지역 외에도 전국에서 전반적

으로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별로 관할구역내 배출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 폐기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칼럼] 3·15 의거가 오늘에 주는 교훈

지금으로부터 61년 전 오늘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와 정경유착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됐다.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미안마 사태와 유사한 국민적 저항은 경찰의 발포로 해산되는 듯 했으나 4월 11일 마산중앙부두에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2차 시위로 이어졌다. 3·15 의거를 시작으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군부독재의 얼룩진 과거로 남았고 다시 7년 뒤인 1987년 6·10항쟁은 이 땅에 민주화가 정착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성숙한 민주국가로 탄생했으며 풍요로운 경제와 문명의 혜택이 4차 산업 혁명의 뿔뿔 역할을 하며 상상 이상의 시대를 향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촛불혁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과오를 심판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의 문정부 탄생의 도화선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돌이켜 보건데 어떠한 결과에는 그 나름 그만한 과정이 있었으며 그 공통점은 국민적 분노가 팽창할 때 자연스레 발생한다는 점이다. 견집을 수 없는 분노는 하루 아침에 총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참을 만큼 참다가 터지는 만큼 민중봉기의 위력은 가공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를 거슬러 봐도 탐관오리나 부패한 관료들의 백성 착취가 원인이었으며 험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이판사판으로 들고 일어나면 결과는 대규모 유혈 사태로 종지부를 찍은 과거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경기는 최악의 바닥을 쳤고 적잖은 국민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성토와 국정농단이라는 명분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태블릿PC 등 스위칭 성년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나름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현실이다.

실상가상 이렇듯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피폐한 살림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국민건강이라는 명분 앞에 그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던 방역의 허점들은 검증이나 이의제기 없이 위축은 듯 썩소리 못하고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나름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는 한때 친목단체인 부영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너도나도 전문성 없이 장관 자리를 차고 앉았고 무능력한 야당 또한 장관청문회에서 엉뚱한 질문으로 울대에 힘을 주거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지적조차 못한 채 인선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누가 장관을 하면 어떻고 누가 예산을 특정 정당 방침대로 끌고 가면 어떻겠는 가만 최종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는가.

국토부장관의 번복된 부동산 정책이 그러했고 현직 국토부장관이 여론의 단두대에 올라 관두내 내내 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최근 벌어진 모든 상황이 3·15부정선거나 광주 민주화운동때나 6·10항쟁 때, 그리고 세월호 촛불혁명 때와 공통적인 것은 국민적 분노다.

LH 토지투기 사건은 지금와서 논란이 될 뿐이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LH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국방부, 기상청, 여가부 등 예산대비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진작부터 있었던 바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지자체의 부패는 그 종류와 규모가 천태만상이었음에도 특정 공기업만 털어내는 건 자승자박의 길이다. 그럼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 끝까지 뒤져보면 모두가 공방이다. 도둑질한 지나 문단속을 허술하 한 지나 같은 공방이다.

국민적 분노가 어찌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방치한 검찰이나 제대로 취재·보도하지 않은 언론이다. 내부는 외부든 감사조차 제대로 못한 자들 모두가 공방이며 행정이 정치의 산하에 있듯 그런 자들을 선출한 유권자가 최종 책임자다. 누구든 죄 없는 자들을 던지라 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했다고 뜬금없는 청소 질인가. 지금이 때로 터지면 먼저 안 날 자 얼마나 있을까.

처음 청와대에서 국회의원과 서울 공무원 빼지는 말부터 코미디다. 대통령 사저까지 농지법위반이라며 들고 나선 야당을 향해 구린데 없으면 털지는 말에 야당부터 털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아예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면 입에 나올 수 없는 말이다.

500년 전이나 나라를 통째로 뺏긴 일제 식민지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백성이 국민으로 명칭만 바뀐 뿐이지 어찌 하는 것들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까.

3·15의거 61주년을 맞이하여 나라 곳곳이 거덜 나기 전에 있는 자들 좀 내놓고 공무원들 하라피 줄라매면 좀 나아질까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 엉뚱한 예산 줄 줄 새는 것 막을 수 있고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잠재울 수 있는데 가진 국민들 외면한 채 서로 책임론 공방만 벌이면 어찌되는 것인가.

제2의 김주열 군 사건이 터진다면 그때는 늦는다. 화제가 내려면 발화점과 연소재와 산소가 있어야 한다. 이미 분노라는 연소재와 고통이라는 산소는 갖춰졌기에 자칫 발화점이라는 계기가 생길까 염려된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지천에 잃을 게 없는 자들이 넘친다. 가진 지와 제도권 안에서 제때 국책을 받는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박암/김균석

기술기반 청년창업 활성화나선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공모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1년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도내 유일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선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뒀다.

2016년도부터 시작해 올해 6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더플랜잇, 닥터다이어리, 바이올렛, 튜링 등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배출하며 도내 창업 활성화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비롯한 차세대 융합기술 및 기타 기술기반 등이

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대학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생 중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신규 20팀과 후속지원 5팀 등 총 25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속지원의 경우 전년도 사업수혜자 가운데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시제품 제작비, 실현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사업화자금과 융기원내 공동창업공간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및 개별 사무실 입주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사업화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확대됐으며 평가에 따른 등급별로 S등급

5,000만원, A등급 2,000만원, B등급 1,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이외에도 융기원 주요 연구센터 및 서울대 교수진과 연계된 멘토링, 도내 성공 스타트업 투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 밋업', 국내 유명 VC·AC 초청 '융합기술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 창업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참가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참가자들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생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2021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스타트업 모집! 3.15(월) ~ 4.7(금)

- 1. 모집분야: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
- 2. 지원대상: 도내 소재 대학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생
- 3. 지원형태: 신규 창업팀 20팀, 후속지원팀 5팀
- 4. 지원금액: S등급 5,000만원, A등급 2,000만원, B등급 1,000만원
- 5. 지원혜택: 시제품 제작비, 실현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사업화자금, 융기원내 공동창업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청처: 융합기술사업지원센터 (031-800-9659)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사전투기 의혹 LH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

김은혜 의원,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드러나”

최근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LH가 김은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해 보급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임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이었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한 인물이다.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각각 소속단 총괄 및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이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업무 외 목적, 즉 투기

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해서 여부도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내 집 마련을 못하고 통발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이번 분석이 잘 설명해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다면 팽탕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최영주 시의원,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환자 강제전원, 충분한 소통 및 대책 없이는 절대 불가”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과 관련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담당부서와 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서울지역 3곳 등 전국적으로 11곳을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의 의료기관이다.

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262명으로 평균연령이 79.8세이며 환자의 90% 이상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이다.

또한 2년 안팎으로 장기입원 중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최영주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강남구청과의 소통 없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통보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행복요양병원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 지역주민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환자 및 보호자, 병원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으로 인해 불안과 느끼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타 병원으로 강제 전원 당해야 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 조치에 대한 반발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갑자기 타 병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하며 강제전원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환자 강제 전원 조치를 잠정 보류하고 소통과 대화로 풀어 나가기로 한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말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시립병원 및 시립 요양병원 확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말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최광수/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금강보행교, 세종시 대표 랜드마크로 활용해 관광객 유치해야”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 핵심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홍보방안 수립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될 금강보행교 개통 시기에 맞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완공될 예정으로 세종시의 주요 관광자원인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세종수목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세종수목원 개원과 함께 지난 1월 세종호수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극복 이후 세종시의 주요 관광 자원을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 및 주차시설,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세종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금강보행교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개통과 함께 널리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중앙녹지공간을 테마파크 형태로 아우르는 명칭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홍보방안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에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은/기자

기초학력보장법 관련 ‘교사 지원’과 ‘진단 활동’중심 추진 공감대 확대

강득구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방문,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 큰 틀의 합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져 가는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특히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회적·정서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과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 논의 속에 언급된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생 출세우기’나 ‘학생 낙인’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장’에 담긴 교육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과 시행령 제정부터 정책 마련까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하고 ‘현장 교사

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초학력 보장이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계적인 검사와 평가보다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진단활동’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둔 접근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법률 공백 상태인 공교육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임에 함께 해결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교육불평등해소 4법에 대한 관심과 공동 노력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함께 하기로 했다.

교육자 문제로 인해 주요 법안으로 인정되어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

최광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7 동신에이스텔 701호

발행, 편집인 : 최수진 / 부회장 박유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 최수진

대표전화 : 1899-9659 e-mail :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 내선 (112) 문 화 부 :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 서울 가50146 사 회 부 : 내선 (113) 부 등 신 부 :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 내선 (114) 오피니언부 :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 : 내선 (115) 지 방 부 : 내선 (119)
 편집국 : (02) 2612-2959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광주시, '워크온' 활용 챌린지 걷기프로그램 운영

소소한 걷기, 일상이 운동이 되다

광주시보건소는 '소소한 걷기, 일상이 운동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워크온' 활용 챌린지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민의 걷기 운동 활성화 프로그램인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워크온은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개인별 맞춤형 걸음 수 제공,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주민 간 소통 및 동기부여, 걷기 좋은 길 안내 기능이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시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3월 봄의 시작 나 혼자 매일 걷기' 챌린지를 시작한다.

14일 동안 목표걸음 10만보를 달



성한 선착순 100명의 참가자에게 건강꾸러미를 배송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핸드폰에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후 광주시 공식 커뮤니티인 '광주시 워킹투게더'에 가입하고 '나 혼자 매일 걷기' 챌린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서군의 보건소장은 "걷기에 재미를 더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적극 활용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걷기 문화 확산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정읍시, 건강 걷기 앱 '워크온' 3월 챌린지에 도전하세요

2주간 하루 30분 이상 80,000보 달성하고 문화상품권도 받고

정읍시 보건소가 생활 속 걷기 운동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민 건강 걷기를 유도하기 위해 구축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주간 하루 30분 이상 걷기 챌린지에 도전해 80,000보 걷기를 달성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3월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하고 정읍시 커뮤니티 '1530 워킹 정읍'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 기간은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이며 목표 달성자는 쿠폰 받기를 통해 본인 휴대폰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챌린

지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걷기운동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라며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비대면 걷기행사, 건강 챙기고 사은품 받고

3주간 20만보 달성하면 건강생활실천 키트 증정

남해군보건소가 일상 속 걷기 운동 확산시키고 지역주민의 걷기를 유도하기 위해 걷기 챌린지 행사를 진행한다.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걷기 챌린지 행사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해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앱 하단의 챌린지 탭에서 '2021 건강걷기 챌린지' 확인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된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활동을 통해 3주간 20만보 이상 걸음을 달성한 주민 3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건강생활실천 키트 쿠폰을 증정한다.

건강생활실천 키트에는 아령, 식사운동일지, 안내책자, 마스크 등 8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쿠폰은 모바일 앱 '워크온' 선물



함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실로 방문해 건강생활실천 키트를 받을 수 있다.

남해 보건소 최영근 소장은 "걷기 운동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주민이 목표달성을 통한 성취감뿐만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습관도 형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김천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3월 챌린지 실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운영

김천시는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3월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3월 챌린지는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목표걸음 10만 5천 보 이상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챌린지 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설치 후 김천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김천시 챌린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른 후 휴대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챌린지 기간 동안 목표 걸음 수 10만 5천보를 채우게 되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3월 말 워크온 앱 내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중섭 김천시장장은 "3월에는 봄철 꽃샘추위와 큰 일교차로 체온 유지가 힘든 만큼 보온에 유의하시면서 건강 걷기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2021 남양주 딸기축제 '딸기피크닉 가자 GO'

Zoom 쿠킹클래스 참가자 모집

남양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 딸기축제를 개최한다.

'방구석 챌린지, 따라해 봄 딸기'를 슬로건으로 기획된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택트 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을 찾아가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 중 전문 요리사와 함께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딸기 디저트를 소개하는 'ZOOM 쿠킹클래스' 참가자를 프로그램별로 20명씩 모집한다.

'ZOOM 쿠킹클래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신청 방법은 남양주딸기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해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 정약용 딸기축제 주재동 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시민들이 남양주딸기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양주 딸기 축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참여해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허성곤 김해시장, 저출산 극복 챌린지 동참

허성곤 김해시장은 12일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달 충청남도에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에 대응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포함이라는 용어는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챌린지는 저출산 극복 캐치프레이즈가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 개인 SNS에 게시한 뒤 1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우룡 부산동래구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허성곤 시장은 "이번 챌린지가 국가적 위기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다음 주자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지목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천군, '뚜벅뚜벅 모바일 걷기 앱' 3월 챌린지 운영

진천군이 군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뚜벅뚜벅 모바일 걷기 앱' 3월 챌린지를 운영한다.

12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뚜벅뚜벅사업'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운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온택트 걷기운동 사업이다.

이번 챌린지는 오는 24일까지 누적걸음 수 10만보를 달성하면 되며 무리한 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걸음수는 1일 최대 1만 5,000보로 제한된다.

이번 챌린지에 도전해 10만보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쿠폰 5000원

이 지급될 예정이다. 챌린지 참여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접속 -> '워크온' 앱 다운로드 -> 뚜벅뚜벅 커뮤니티 가입 -> 3월 챌린지 참여 순서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챌린지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챌린지를 통해 목표 달성의 성취감도 느끼고 가족, 동료, 친구들과 긍정적인 걷기 경쟁으로 건강도 함께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직원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마포구에 부는 변화의 바람

마포구, 조직문화 관련 직원 아이디어 적극 수렴, 행복한 직장생활 지원

“마포구 공무원들이 행복하면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을 내 펼 수 있다” 마포구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개선해 구성원 간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울릴 수 있는 직장으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기존의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을 조성해 조직 구성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우선 구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를 활성화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운영 또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와 같은 의견제출 방식 외에도 직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목민심서를, 사무관 승진자에게는 목민심서와 또 한편의 개인 맞춤형 책을 선물하고 있다.

이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직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매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유 구청장이 친필로 목민심서에는 축하한다는 글귀를, 구청장이 직접 선물 받는 직원을 생각하며 선택한 소설, 철학, 자기계발 등 맞춤형



물에는 각기 다른 좋은 글귀를 적어 마음을 전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임용장과 함께 목민심서를 건내받은 한 새내기 주무관은 “생각치도 못한 책 선물도 감동이었는 데 책 속에 직접 적어주신 문구를 보니 공직생활을 새로 시작하면서 오는 긴장감이 풀어지고 구청장님의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구청장님과 한 가족이 된 느낌을 받아 애사심이 생겨났다”고 임용식 날을 기억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마포구청사 내에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의 휴게공간을 마련해 직원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 피로를 회복하고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직원들이 본 업무 외에도 추가 업무를 수행하며 바빠진 탓에 건강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점을 고려, 직원 건강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해 마음 건강도 챙긴다.

또한 직급에 관계없는 직원들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동호회 지원을 확대해 소속감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며 “직원들이 행복한, 즐거운 직장 마포구로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관악구, 2021 협치회의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40명으로 재구성된 민관협치활성화 심의·의결 기구 ‘관악구 협치회의’ 새로운 출발

관악구가 지난 1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1 관악구 협치회의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협치회의는 민선7기 핵심 운영가치인 혁신·포용·협치의 관악을 구현하고 민·관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제정·공포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치회의는 지난 2년간의 협치 경험을 쌓아온 20명의 민간 위촉직 연임위원과 구의회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신규위원 10명, 관악구 실·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0명, 총 40명으로 재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관악구의 민관협치 활성화정책 수립 및 실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민관협치 활성화와 관련된 중점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먼저 위촉식에서는 2021년 신규위원 10명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민간공동의장으로 강중원위원을 선출, 앞으로 2년 동안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함께 공동으로 협치회의를 대표하게 된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

서는 ‘2020 지역협치 추진경과’와 ‘2021 지역협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2020년도 추진경과에서는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방송 공론장’을 개최,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식 공론장 운영의 대체방안을 찾던 타 자치구의 본보기가 된 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

또한 협치 의제발굴 및 과제화를 위한 총 26번의 공론장을 개최해 관악형 광장문화 조성, 꿈시장 운영, 공공요양시설 건립 등 8개의 협치과제를 발굴했다.

이들 과제는 시비 5억 900만원을 지원받아 2021년도 협치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악 협치회의는 올해도 의제별 소규모 찾아가는 공론장으로 더 많

은 주민과, 더 깊은 속의·공론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를 발굴해 협치과제로 선정하는데 힘을 예정이다.

또한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관악구 협치관련 전용 온라인 교육공간을 구축해 협치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민선7기 운영의 핵심가치인 혁신, 포용, 협치의 관악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며 살기 좋은 관악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영등포구, 우리동네 주거개선 나선다...청년건축학교 집수리 과정 교육생 모집

만18~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대상...10명 모집, 우리동네 주거관리 기업 조합원 활동 가능자 우대

영등포구와 영등포청년건축학교는 인테리어, 도배 등 전반적인 집수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우리동네 주거개선 관리기업 구축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건축인을 오는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주거개선 관리기업 구축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집수리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모델이다.

교육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우리동네 주거관리 기업’ 조합원으로 활동할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선발 시 우대된다.

또한,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집수리 현장 실습과 창업 지원 과정을 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인테리어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집수리 진단, 밀착업, 페인트 시공, 도배 시공, 전기배선, 타일 시공, 욕실 도기 및 약세처리, 장판 시공을 진행하며 마지막 6~8주차에는 집수리 실전 시공 등 현장 실습에 나선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전체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월 16일까지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집수리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기초부터 탄탄한 건축기술을 습득하고 향후 건축분야 전문기술자로서의 꿈을 그려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지역 청년들의 주도적인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활동 동참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의 따뜻한 가치 지역 곳곳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우리동네 주거관리 기업 구축을 위한 집수리 기초 과정

모집기간: 2021년 2월 24일(수) ~ 3월 16일(화)까지

영등포청년건축학교는 '우리동네 주거개선 관리기업 구축 사업'을 통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거나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모델이다.

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우리동네 주거관리 기업' 조합원으로 활동할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교육기간: 3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강동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맛이 3색 봉사활동

거동 불편 어르신 72명의 도시락 만들어 비대면으로 문 앞에서 전달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실현 중인 강동구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었던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맛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건강방역나눔’, ‘온정급식나눔’, ‘행복배달나눔’ 세 가지로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직원과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가 함께 했다.

‘건강방역나눔’은 노인복지관의 10인 이하 사회교육프로그램 개강을 앞두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다.

‘온정급식나눔’은 저소득 거동 불편 어르신 72명의 도시락을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만드는 것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코



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문 앞에 전달하는 ‘행복배달나눔’ 봉사도 펼쳤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걱정이었다.

복지관을 소독하고 어르신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힘든 상황 속에도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노인복지관 종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용산구, 직원 대상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

용산구청 직원들은 매일 아침 책을 읽는다

서울 용산구가 비대면 직원 교육 사업으로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학습 방법은 간단하다.

주1회 스마트폰으로 알림톡이 오면 링크된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베스트셀러 및 신간 도서 요약 해와 도서 요약 글로벌 트렌드 해의 미디어 브리핑 분야별 학습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며 사운드 파워, 메타버스, 사람이 힘겨운 당신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 하버드 6가지 성공습관, 시장의 속성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또 경제, 문화, IT, 바이오, 나노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트렌드 분석 자료를 제공, 직원들이 중단기 미래를 학습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웰스트리트저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 해외 미디어 핵심 정보

도 함께 브리핑하고 있다. 전체 콘텐츠 수는 약 5500건이다.

구 관계자는 “모바일 학습 전문업체가 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한다”며 “콘텐츠 학습 성과는 승진 등에 필요한 상시 학습시간으로 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구는 직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반기별 15명씩 이용실적이 높은 우수 직원을 선정, 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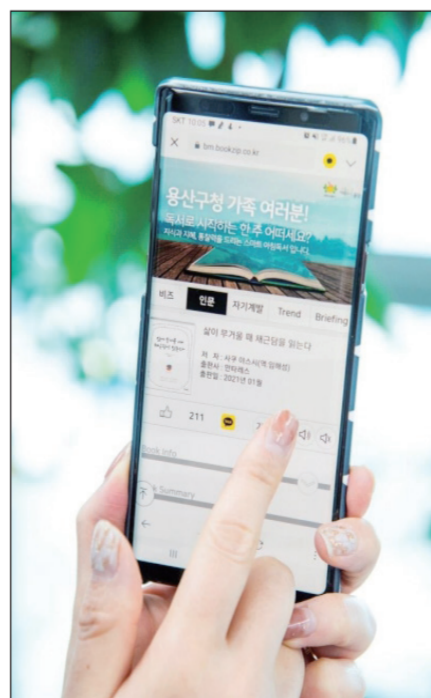
구는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 독서를 향상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서마라톤 경진대회를 개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직원 8명에게 구청장 표창과 최고 30만원 상금을 수여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독서는 마음의 양식을 쌓고 업무 성과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에게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 창

의적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도봉구 학마을도서관, ‘2021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관 1단’ 공모사업 선정

3월 11일부터 모집해 오는 4월부터 ‘따뜻함을 수놓는 시간’ 진행, 프랑스 자수 강좌 및 동아리 운영 지원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학마을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운영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관 1단’ 사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국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학마을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프랑스 자수, 따뜻함을 수놓는 시간’ 동아리 강좌를 마련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프랑스 자수의 다양한 기법들을 배우고 동호회 회원들과 그림책을 소재로 하는 자수 그림책, 꽃자수 등을 만들어 본다.

향후 프랑스 자수 동아리 작품들은 학마을도서관 공간플러스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동아리 강좌의 모집인원은 성인 9명이고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마감 시까지이다.

수업은 4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도서관 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을 병행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마을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역도서관이 주민들의 독서문화에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프랑스 자수 기초부터 심화까지

따뜻함을 수놓는 시간

대상: 성인 9명

모집기간: 3월 11일(목) - 선착순 마감

운영기간: 4월 8일(목) - 11월 25일(목) 총 16차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운영장소: 도서관5층 시청각실 또는 온라인 수업(200cm 크로마19 노트북 1대, 1인1기 1대, 1인1기 1대)

수강료: 무료

문의: 070-4470-4954

서울시, 50+세대 제조산업 경력자-기업 매칭 프로젝트...참가자 모집

만 45~64세 서울시민 대상, 12일부터 31일까지 50+포털 통해 1차 참여자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제조산업 출신의 50+기술전문인력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재해 다양한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50+기술전문가 매칭지원사업'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그동안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 정책이 대부분 전문직, 사무직 위주로 집중됨에 따라 기술분야 숙련 전문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부족했던 점에 주목하고 제조산업 출신의 50+기술전문가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돕고 50+적합 일자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기술분야 인재 매칭 플랫폼을 활용, 오픈프라이드로 인재와 기업을 매칭해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다양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이를 위해 기술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술자수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두 기관은 제조산업 출신의 고경력 퇴직 기술자를 선발, 교육 후 온라인 매칭 플랫폼에 등재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일자리 및 프로젝트에 매칭하는데 협력한다.

'50+기술전문가 매칭지원사업'은 제조산업 근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만 45세~67세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총 100명의 참여자를 2회에

걸쳐 선발하며 1차로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50+포털을 통해 50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현장관리·사무직과 현장기술직이다.

분야별 선발 인원 및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50+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총 오후 4시간의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4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등재 후 활동 연계를 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50+기술전문가의 재취업 및 지속가능한 일 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재 후에도 정기적인 개인 상담 및 컨설팅, 그룹 간담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일자리 매칭률을 높일 것이다.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 진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술 전문성을 쌓아온 50+세대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만성적인 숙련 기술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50+ 기술전문가 매칭지원사업

다시, 함께 세상을 바꿀 기술전문가를 찾습니다!

2021년 3월 12일(금) ~ 3월 31일(수)

50+기술전문가 매칭지원사업은 제조산업분야 고경력 전문가를 기술자 매칭플랫폼 기술자수에 등록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일자리에 매칭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협력사업입니다.

제조산업분야 : 기계/제조, 전자/전기, 건설/조선 등

PM, 설계, 생산, 품질, 분석, 사공, 신제품개발 등
용접, CNC, MCT, 인테리어, 건설 등

모집내역

모집내역	모집기간	모집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50명 내역	2021.03.12(금) ~ 03.31(수)	만 45세~64세(1956.01.01~1976.02.28)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제조/제조산업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술자수 플랫폼에 등재, 프로젝트 일자리 지원 및 매칭	50+포털 온라인 접수
50+기술전문가 매칭지원사업	2021.03.12(금) ~ 03.31(수)	만 45세~64세(1956.01.01~1976.02.28)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제조/제조산업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술자수 플랫폼에 등재, 프로젝트 일자리 지원 및 매칭	50+포털 온라인 접수

문의 : 기술자수(주) 1800-9665 /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상담센터 02-460-5350 /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일자리팀 02-460-5371

구로구, '구로마을대학'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지역 내 창업활동 장려 위해 성공회대와 함께 추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일환

"유니콘 기업'의 꿈, 구로에서 펼쳐보세요" 구로구와 성공회대학교가 '구로마을대학' 창업입주팀을 모집한다.

구로구는 11일 "지역 내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캠퍼스타운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사업의 일환으로 구로마을대학 창업공간에 입주할 예비·초기창업기업을 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로마을대학 창업공간은 성공회대학교 구두인관과 구로마을대학에 마련됐다.

입주대상은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인 초기창업기업과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기업이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개별사무실과 기본 사무용품, 창업교육 및 멘토링,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 각종 대회에 우선 참가자격 등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다음달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사업성과평가를 거

쳐 실적 우수 팀에게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입주연장 기회가 주어진다.

입주를 원하는 이는 이달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구로마을대학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로마을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공회대학교는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대 1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항목은 역량평가 30점, 사업아이템의 사회적 가치 및 영향력 20점, 실현가능성 및 참신성 30점, 사업계획서 충실성 10점, 입주 적합성 10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역량은 충분하지만 활동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창업자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성기기자



2021. 02. 24 ~ 03. 19

2021년도 성공회대학교 구로마을대학 창업입주팀 모집

입주 조건	초기창업기업 (사업자등록 3년 미만) 또는 예비창업기업 (6개월 이내 창업가능한 기업)
입주 팀	최대 14 팀
입주 기간	선정기 (2021. 04. 01 ~ 2021. 08. 31) 운영기 (2021. 10. 01 ~ 2022. 02. 28) *입주기 종료후 100%창업률유지율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공간	성공회대학교 내 구로마을대학 창업입주공간
지원 내용	-사무공간 및 기본 사무기기 제공 -창업교육 및 창업멘토링 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 각종대회 우선 참가자격 부여
접수 기간	2021년 2월 24일 (토) ~ 3월 19일 (금)
접수 방법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구로마을대학 이메일(maeul.guro@daum.net) 제출
문의	02-2610-4727 / 구로마을대학 사무국

서울시캠퍼스타운,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구로마을대학

주민과 행정이 힘 모은다... 영등포구, 협치사업 공모

31일까지 민관협력 사업의제 제안 접수...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영등포구가 이달 31일까지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사업 의제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협치사업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의제 제안은 물론 사업선정 과정 및 진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협치사업 의제 제안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한다.

영등포구민 또는 기관·단체 등 영등포구 주민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

구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상담 및 찾아가는 협치상담소를 운영한다.

구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협치사업 발굴은 지난 2017년도부터 매년 주민 의견을 받아 이루어져 왔다.

지난해는 총 7개의 의제가 선정됐고 현재 사업별 워킹그룹을 조성해 민간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공모에서 제안된 의제에 대

해서는 향후 타당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심사를 해 주요 의제 30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선정된 30건의 의제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주민공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수가 가장 높은 의제 10건에 대해 민·관 합동 의제연구모임을 구성, 다양한 속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한다.

구는 오는 6월 6일까지 과정을 공유하고 도출된 10개의 의제를 함께 공감하는 '열린공론장'을 개최한다.

여기서 2022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사업을 선정하고 영등포구협치회의 승인을 거친 뒤 최종 사업이 확정된다.

재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제안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인 민·관 협치를 활성화시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탁월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협치사업을 찾습니다!

2022 협치사업 공모

협치사업 온라인제안 : <https://bit.ly/협치제안>

찾아가는 협치 상담소 : 전화신청 02-2670-1649 / 3189

신청기간 : 2021. 3. 12(금) ~ 3. 31(수)

문의 : 02-2610-4727

퇴근 후 만나는 인문학 중랑, 인문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사서삼경 중 논어,中庸, 맹자, 대학 등 4개 주제로 진행되는 동양 고전 인문아카데미와

중랑구는 중랑문화재단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 3월부터 인문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양 고전 인문아카데미와 중랑 이음 인문학 아카데미로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먼저 동양 고전 인문아카데미는 동양 고전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운영된다.

논어,中庸, 맹자, 대학 등 4개 주제로 4회씩 총 16회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의 주제는 '논어'로 공자가 추구했던 가치를 살펴보는 한편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재구성해보고 그가 이상적 인격으로 제시했던 참다운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강연은 고전학자인 전호근 교수가 진행한다.

다음으로 중랑 이음 인문학 아카데미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1회씩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경제, 4차 산업,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로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가깝게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강연들로 구성됐다.

오는 3월 31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삶을 주제로 강연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두 아카데미는 모두 현장 강의는 물론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 진행해 현장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도 퇴근길에 휴대폰으로 쉽게 인문학 강화를 즐길 수 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인문아카데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의 독서문화행사문화행사신청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현장 강의의 경우 50명, 온라인 신청은 제한 없이 접수받는다.

류경희 중랑구청장은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인문아카데미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신도 성장하고 사회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찬식기자



인문아카데미

2021년 4월 ~ 7월 매주 목요일, 19:00~21:00 (총 4주, 16회 강연)

주요 주제: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유망 미래 분야

주요 내용

- 01 [논어 편] 4월 14~15일 (총 2회) 19:00~21:00
- 02 [중庸 편] 5월 5~6일 (총 2회) 19:00~21:00
- 03 [맹자 편] 6월 14~15일 (총 2회) 19:00~21:00
- 04 [대학 편] 7월 13~14일 (총 2회) 19:00~21:00

모집인원

- 01 참여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모집인원 50명~200명)
- 02 모집기간: 1. 논어 편: 4월 13일(수) 19:00~21:00, 2. 중庸 편: 5월 4일(수) 19:00~21:00, 3. 맹자 편: 6월 13일(수) 19:00~21:00, 4. 대학 편: 7월 12일(수) 19:00~21:00
- 03 신청방법: 신청기간: 4월 13일(수) 19:00~21:00, 5월 4일(수) 19:00~21:00, 6월 13일(수) 19:00~21:00, 7월 12일(수) 19:00~21:00
- 04 신청처: 동양고전인문아카데미, 동양고전인문아카데미

문의: 02-460-5371

서구, 경서3구역 느티나무 활용 '명품 숲길' 조성 나서

버려질 위기의 가로수, 친환경 숲길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 서구가 차질 배어내 버려질 위기의 가로수를 친환경 숲길로 탈바꿈하며 자원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천에 앞장서 주목된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제부 도로폭 확장 공사에 따라 기존 가로수인 느티나무 300주가량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서구는 이 나무를 경서3구역 내 공촌천변 근린공원에 이식해 국내 최대 연장의 명품 느티나무 숲길을 연내 조성키로 했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사업 구역의 가로수는 생육상태가 좋아 수목으로의 가치가 높아, 이식에 따른 수목 활착 문제나 이식장소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어질 뻔했던 느티나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해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보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며 아름다운 숲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됐다.

이번 숲길 조성에 사용되는 느티나무는 중봉로 및 경명대로 상의 30년 이상, 수형이 양호한 느티나무이다.

특히 느티나무는 한 그루당 1년간 산소발생량이 1.8톤, 이산화탄소 저장량이 2.5톤으로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우수한 수종이다.

이를 활용해 숲길을 조성하면 도

심에 맑은 공기를 전달하는 허파의 역할을 하는, 친환경 도시 숲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뿐 아니다.

느티나무 재활용 이식은 새로 심는 비용 대비 약 4배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를 300주로 환산하면 약 2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경서3구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부가가치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숲길을 기점으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공원, 청라국제도시 등 주변 지역을 잇는 총 6.3km의 경서동 일원 이음길이 형성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느티나무 300 숲길의 야간 경관 조명 등 불거리를 통해 주민들이 찾는 지역 명소가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현 서구청장은 "느티나무 300 숲길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나무를 숲길 조성에 재활용한 환경 보전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의 좋은 사례로 남아,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도시 숲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김종남기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인 중심의 스마트 복지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서비스 전환

코로나19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장애인분들을 위해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가정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언어·음악·인지·작업·운동기능향상 동영상 무료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치료가 어려워지자 복지관에서는 20년 7월부터 유튜브 '광나는TV'채널에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누구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말, 콩 등의 물건으로 재미있게 놀이하며 아동의 언어·음악·인지·운동기능·작업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2021년 3월)까지 기능향상을 위한 동영상은 총 35건이며, 대면치료를 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월 1~2건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현 세태를 반영한 키오스크 교육, 영상미디어 교육 개설, 방송실 구축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 태블릿 등의 전자매체가 중요해짐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 사용 교육'과 '영상미디어 제작 교육'을 새로 개설했다. 질 높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곧 방송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와 태블릿 교육 3개의 반을 운영하여 정보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장애인분들의 정보접근성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마련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 80여개 아동·청소년·청년기·노령기 연령을 고려하여 자립, 취미, 기초문화 등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가장 필요한 자



립 지원을 위한 바리스타, 제빵, 자기결정 프로그램, 노령기 장애인의 신체기능 보안을 위한 스트레칭교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한 스튜디오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음악, 미술, 율예, 체육, 수영 강좌 등 현재 개설된 교육만 약 80개에 이른다. 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스튜디오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음악, 미술, 율예, 체육, 수영 강좌 등 현재 개설된 교육만 약 80개에 이른다. 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스튜디오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설명절 행사는 재가장애인 70가정 문 앞에 직접 음식을 전달하여 접촉을 최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다소니예술단 순회공연은 계획을 변경해 관중없이 사전 녹화한 후 3월 7일 '광나는TV' 유튜브 채널로 공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수교육도 약 80명씩 두 번에 걸쳐 비대면 화상회의 어플로 대체했으며 3월에 있을 보수교육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4월에 진행할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도 비대면으로

준비가 한창이다. 비대면 체험과 이벤트를 준비해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 도할 계획이다.

복지관 정보를 알리기 위한 SNS 개설 및 활성화

작년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휴관과 운영을 반복하면서 온라인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복지관은 기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더해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하고 웹진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유튜브도 활성화해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작년 한 해 총 125개의 영상으로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복지관에 오지 않아도 복지관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또한 비대면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은 기획상담팀 070-4510-3604로 전화하면 복지관의 소식을 담은 웹진을 정기적으로 이메일로 받거나 복지관 소식지를 신청할 수 있다.

원종균/기자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개소식 개최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체력인증센터'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12일 정식 개소식을 개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국민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함께하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이다.

광주시 체력인증센터는 동원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건강관리 전문가

2명과 운동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이 광주시민의 건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됐으며 동원대학교에 위탁 협약과 함께 운영 중에 있다.

만 13세 이상 광주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측정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증진교실 제공과 함께 공인인증서도 발급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마스크, 학 교 보안관 등 체력 인증이 필요한 직업군에서는 취업 시 인증서 가 첨부

되어야 한다. 신동현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체력왕 선발대회, 건강증진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성지순례길, 팔당호 히브섬 등지에서 건강걷기 행사 등 다양한 아이টে으로 건강도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이천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이천시민 서명운동 전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23만 이천시민의 간절한 염원 담는다

이천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제3차 이전 발표에 따라 이른바 '필승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고 온라인 서명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와 SNS의 배너 링크, QR 코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서명은 이천시청 민원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진행한다.

시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제3차 이전계획이 발표된 즉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이천시장과 시·도위원의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3만 이천시민의 유치 염원을 담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시민 주도 결의문 발표, 온오프라인 서명, 시민 동참 릴레이, 도지사에게 보내는 마음 손편지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운동을 벌이는 등 공공기관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민과 관이 배수진을 펼치고 총 력 대응을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시는 수도권 규제로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는 한편 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과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이전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시험할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허브로 기관 이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프라를 갖 추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며 경기 동남부 지역 중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의 최고 적격지임을 자부하고 있다.

김동승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규제 개선을 위해 수없이 일 어섰지만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라는 벽에 늘 가로막혔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도 중요하지만 수십년간 감당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도 이천시민을 위로하는 중요한 방법일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시민이 합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경로당도 스마트하게, 부천시가 앞장선다

부천시는 지난 11일 초고령화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한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기능이 강화된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을 공모했다.

부천시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부천시지회, 노인복지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표준화·효율화에 집중한 비대면 여가·복지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실내스마트팜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시는 국비 9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12개 거점 경로당 등 총 45개소 경로당을 ICT 화상플랫폼과 IoT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경로당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 "급격한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은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

이라며 "선도자치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스마트건강돌봄서비스로 초고령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고양시, 전문가 포럼으로 '녹색건축' 청사진 마련

고양시 환경정책... 현재까지 A+ 순조로워

고양시에 본격적인 녹색바람이 불게 됐다.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양시는 "고양형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과 정책간담회를 1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파리기후협약 이행과 녹색도시 건설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녹색건축이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제1부 포럼은 고양시장의 '도시혁명의 시작'이라는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녹색건축 전문가인 유기형 박사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부분 정책 제안' 최경석 박사의 '비용 효율적인 그린 리트로핏' 발표가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한국부동산원 김선복 박사와 배철학 박사의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 인증제도 이행 및 적용' 장흥지구 도시설계 참여자인 ㈜해안건축 김태만 건축사의 '장흥지구 녹색도시 건축 방향성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에서는 전문가의 토론과 참



여자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지는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건축물은 그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건설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고양시장은 "향후 10년 우리 사회는 기후문제가 가장 큰 위기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의 코로나19는 앞으로 더 거대한 위기의 전

조일 뿐, 이제는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과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4월에 공포될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과 함께 앞으로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매년 없이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고양을 만들기 위해 '2019년 녹색건축 선언', '파리기후협약 이행방안 수립'으로 방향성을 마련한 바 있다.

최만식기자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높인다

준공영제 마을버스 시민평가단 대활약

파주시가 준공영제 마을버스 시민평가단의 2월 활동 결과를 업체별, 차량별로 분석해 운송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청했다.

평가단 99명은 확실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량번호별로 약 500회의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준공영제 시행 후 운행기타 친절도 향상, 차량내부 청결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차시간준수, 무정차, 노선안 내 및 방송 등 운행 신뢰성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 시민평가단은 "준공영제 마을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평가목적에 맞게 더욱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장문규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해 주신 시민평가단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운송업체에 그대로 전달해, 마을버스 운수중사



자들의 자발적·적극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 시민평가단은 앞으로 10월까지 마을버스 준공영제 33개노선을 비교출 탑승해, 운전기사의 친절성, 정류장 무정차와 급출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의 사항을 평가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우수업체와 부진업체, 친절기사 등을 선정해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 시민평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파주시민 9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파주시는 매년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감골도서관, 다독다독 '하루10분 독서운동'

'서로서로 다독다독'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

안산시 감골도서관은 안산시 대표 시민 독서운동 '하루10분 독서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고 함께 모여 소통하는 독서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루10분 독서운동을 11번째 이어오고 있다.

하루10분 독서운동은 가족, 친구, 학교, 기관 등 3인 이상 모임이면 누구나 감골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한 꾸준한 독서로 책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참여모임에는 활동도서 5권을 제공하며 도서관내 독서모임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 지속적인 모임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자율적인 독서활동 후 결과물을 제출하면 심사

를 통해 우수참여단체 5팀에게 안산 시장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독서모임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온라인 ZOOM을 이용한 '감골도서관 독서모임 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독서모임 운영 방법 및 도서 선정과 발제에 관한 실습중심 코칭교육을 5월부터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다독다독 하루10분 독서운동을 통해서 소통하며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시길 바란다"며 "상록주 전체 도서관 11개관에서 온·오프라인 독서모임을 운영해 자발적인 시민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경기도 일자리재단, 12일부터 '잡아바'에서 '취준생 걱정타파 이벤트' 진행

3.12~28일까지 '잡아바' 내 'AI면접 컨설팅' 또는 '심리상담 컨설팅'에 참여만 하면 당첨자 115명 추첨, 백화점 상품권 또는 커피 쿠폰 증정 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2일부터 28일까지 재단 온라인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인공지능(AI)면접과 심리상담 컨설팅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준생 걱정타파 이벤트'를 진행한다.

재단은 최근 비대면 채용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구직자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고 비대면 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

'AI면접 컨설팅'은 구직자가 AI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면접 평가, 성향 평가, AI게임 진행을 통한 전문 솔루션 기반의 답변 내용 분석결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심리상담 컨설팅'은 구직자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 자신감 저하 등에 대해 취업상담 전문 상담사가 예약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직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www.jobaba.net)에 회원 가입 후 '취업역량강화' 항목의 'AI면접 컨설팅' 혹은 '심리상담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하고 참여만 완료하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 115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커피 쿠폰 등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잡아바'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잡아바' 담당부서(031-270-9988)로 연락하면 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잡아바'의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를 통해 도내 많은 취업 준비생이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031.984.8245

대구시, 공공데이터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대

2021년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대구시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기업을 창업·육성하는 '2021년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데이터기업 매칭지원 사업에 데이터기업 13개사와 손잡고 공모를 신청했다.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데이터 기업의 구축·가공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통해 최종선정 되면 5월부터 연말까지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지역 데이터기업 육성과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안부의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모집에 따라 만19~34세의 데이터에 관심 있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인턴으로 선발되

면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며 전액 국비로 급여를 제공받는다.

작년에는 162명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이 대구시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개선 등의 실무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예비·신규창업인을 양성하고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7월경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우수팀을 선정해 대구시의 맞춤형 컨설팅, 사업 아이템 검증,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3월 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지역 내 창업 지원기관, 데이터기업 등으로 구

성된 공공데이터 창업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 산발적이고 중복적인 데이터 분야 창업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예비·신규 창업자들에게 실용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는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현재 대구시는 개방된 950여 건의 목록 중 교통과 관광 분야 공공데이터가 시민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통한 산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기업 육성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의성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생' 모집

의성군은 경상북도와 추진 중인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의성에 정착해 창농을 희망하는 만18세부터 39세까지의 비농업인 청년으로 선발된 교육생 30명은 6주간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1년간 창업실습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전교육은 농업 입문자에게 맞는 작물기초 및 재배기술과 경영분석, 선도농가 견학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창업실습훈련은 1년간 직접 딸기를 재배하며 육묘, 병해충 관리, 품질관리 등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스마트 온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안계면 시안리 일원에 조성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실습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사전교육 및 창업실습훈련은 전액 무료이며 전 과정을 마치면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창업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과정은 3월 19일까지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농업기

술원, 의성군청, 의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기기자

영천시·영천교육지원청·영천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추진

어린이가 살기 좋은 희망영천

영천시는 11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영천시, 영천교육지원청, 영천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스크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초등학생 등교 시간에 맞춰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어린이스쿨존 교통안전을 중점 홍보했다.

참여자들은 대형피켓 캠페인과 홍보물 배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을 지도했으며 운전자들에게는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30km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운전 수칙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감염



병 확산 대비에도 힘썼다.

한편 영천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시설물 설치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영천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김천시 '대왕' 딸기, 국내 최초 해외 수출 '괘기'

'대왕' 딸기도, 이제 싱가포르 시장으로 첫 발 내딛어

김천시에서 생산된 고품질 딸기 '대왕' 품종이 지난 3일 국내 최초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2차 수출까지 순조롭게 완료됐다.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른 '대왕' 딸기는 높은 당도와 뛰어난 경도를 자랑하는 품종이지만, 병해충에 취약해 섬세한 재배기술이 요구되는 희소 품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대왕' 딸기 수출에 첫 신호탄을 쏜 '미인 작목반'은 2020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와 연계해 조성한 '자동화 비닐온실 육묘장'을 거점으로 주기적인 컨설팅을 받으며 고품질 '대왕' 딸기 생산 및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미인 작목반'은 작년부터 '대왕' 딸기를 수출 협약과 판로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다가, 마침내 성사된 이번 수출로 인해 회원



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한층 고조됐다.

현재 김천시는 '대왕'뿐만 아니라 '설향', '알타킹' 등 다양한 품종의 딸기를 활발히 수출해 딸기 위상을 드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세기기자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김재경 소장은 "세계적으로 딸기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프리미엄 딸기 생산 및 수출에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문경 석탄박물관, 은성갱도 실감체험관 개관

뮤지컬과 어우러지는 디지털 탄광, 3월 13일 정식 개관



문경시는 문경에코랄라 내 석탄박물관 은성갱도 실감체험관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3월 13일부터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문경석탄박물관 은성갱도 실감콘텐츠는 실제 갱도에서 광부의 하루를 체험하는 융·복합콘텐츠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에 선정, 개발됐다.

문경석탄박물관 은성갱도 실감콘텐츠는 석탄을 캐던 실제 갱도 공간과 홀로그램,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 창작 뮤지컬 예술 3가지 요소를 결합해 눈앞에 나타난 광부들과 함께 탄광 탐험을 떠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관객들은 기존 전시물과 더불어 총 7개의 신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갱도 내에 입장하게 되면 선배 광부와 연탄 캐러터 '탄이'로부터 은성탄광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탐험을 시작하게 된다.

특히 '꿈을 캐러 가는 길, 400km'와 '광부의 친구, 카나리아' 등 2편의 실감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굴진 앞으로'와 '불을 밝혀라' 코너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선배 광부의 지시에 따라 다이내마이터 폭약을 터트리고 어두운 갱도 내에 불을 밝혀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은성갱도 실감콘텐츠는 1963년 아들 석호와 함께 김씨 가족이 은성광업소에 이사를 오면서 시작된다.

최만식기자

고령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꾸러미 전달

고령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0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비대면 급식꾸러미 제작에 전달했다.

이번 급식지원은 비대면 지원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격려하고 나아가 결실예방 및 영양개선과 올바른 식습관 지도도 병행해 진행했다.

급식꾸러미 구성은 참치캔, 치즈, 김자반, 우동, 팥콩 등 청소년들의 신체건강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급식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울

해 여가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차분 비대면 급식꾸러미를 제작해 지원하게 됐다.

조백섭 센터장은 "학교를 벗어났다는 것이 모든 지원에서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올해 다행히 예산이 증가된 만큼 급식지원 횟수를 늘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함양군, 신뢰와 감동의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함양군청의 얼굴 민원봉사와 지난해 실적 평가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다짐

군민과 소통하며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함양군청 민원봉사와는 군민들과 가장 자주 만나는 곳으로 함양군청의 얼굴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대면 직원 모두가 투명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민원 감동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함양군청 민원봉사는 생활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지적,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부동산 특별조치법T/F, 행복주택T/F 등 9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0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2021년에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찬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에는 군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단순 민원처리로 제·증명발급 2,453건, 여권 457건을 발급했으며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1,802건을 처리했으며 야간 안전 보행에 위해 가로등 6,467개를 설치 1,852회에 걸친 LED등 교체 및 수리·보수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신규 및 말소 등록을 비롯한 제·증명서 발급 등 4만 4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검사관리에 따른 안내 및 홍보를 1만 3천여 회를 실시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군민의 건축물 재산권확보는 물론 보안을 위해 건축물 허가처리,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처리 등을 1천5백여 건을 처리했고 건축물대장 및 도면 발급과 각종 건축행위를 위한 상담을 5천여건 실시했다.

또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토지개발과 관련해 개발행위 1,246건, 농지 관련 301건, 산지관련 411건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으며 완벽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토지이동 공부정리를 1만3천여 건을 실시했다.

기존 지적도면의 마모와 실제도면의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의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 백전 대안지구로 시작으로 8개 지구 1,972필지/1,104,872㎡에 대해 완료했으며 2020년 마천 읍정지구를 비롯해 6개 지구 1,299필지/541,373㎡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20년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2020년 8. 5. ~ 2022. 8. 4. 추진 중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현재까지 715건을 접수했다.

또한 역점사업인 행복주택 건립이 2020년 9월 총200세대 준공되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월 입주자 모집, 2021년 1월 입주를 시작했다.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노후 가로등 정비와 LED교체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복합민원분야에서는 토지개발과 관련한 개발행위, 농지, 산지관련 민원업무 추진한다.

토지개발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ONE-STOP 복합민원처리를 정착하기 위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민원담당자 합동출장을 실시하고 군 계획위원회의 정기개회, 정기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주민 집합교육시간을 활용해 위법하기 쉬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에 대한 군민홍보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해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군민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택개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적분야에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정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토지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측량성과 검사와 토지이동정리 등을 통해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적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를 통해 국제 및 지방세에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해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로·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대처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함양 학동지구, 휴전대포지구, 백전 중기지구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함양군 내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 측량, 정리하고 사업추진 홍보에도 철저히 기해 지적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함양군청 민원봉사는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전용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액검정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정에 민원봉사과장과 직원 일동은 “서비스 경쟁력 시대에 걸맞게 군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선진 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도입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남해군, 국도77호선 '포스코 길' 조성 협의

장충남 남해군수-이철호 광양제철소 부소장 면담

남해군과 포스코가 국도 77호선에 해당하는 '고현면 대사마을~서면 염해마을' 약 10km 구간을 특색있는 가로수와 꽃이 가득한 길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이철호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은 11일 남해군청 군수실에서 면담을 하고 '포스코 길'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국도 77호선 '고현면 대사마을~서면 염해마을' 구간은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자, 바다를 끼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남해군은 녹색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와 협력해 이 구간을 자연친화형 국도로 조성함으로써, '청정남해'와 '포스코'의 동반 이미지 상승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색있는 가로수와 꽃을 심어 '청정남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이 구간을 '포스코 길'과 '포스코 정원'으로 명명함으로써 남해군과 포스코가 함께 윈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도 77호선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정구간으로 남해 부흥의 상징이자 동서화합의 가로로 부상하고 있어, 남해군과 포스코 광



양제철소의 협력사업에 큰 관심이 쏠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포스코와 청정 남해가 협력을 한다면 그 상징성은 더욱 돋보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놓일 구간인 국도 77호선에서 뜻깊은 협력사업이 성사된다면 남해군과 포스코의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해군은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남해군 특산물 구매와 포스코 내 남해장터 운영 등 남해군민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이철호 광양제철소 부소장은 “‘남해’ 하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청정한 환경을 간직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김해서 땅과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농업 확산”

청정 자연환경과 생산비 부담 줄이는 시 지원 맞물려

과거 김해평야로 명성을 떨친 김해에서 땅과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380ha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 323ha에 비해 17.6% 증가한 수치이다. 주 생산 작물은 쌀이며 채소류와 과일류가 뒤를 잇는다.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김해는 화포천, 대포천 같은 청정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연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지도 어느때보다 강하다. 유한한 농지면적 확장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연접필지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400ha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농약의 휘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친환경농업은 해당 농가끼리 모이고 덩치를 키워 집단화 효과를 누

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접지로의 확대를 통해 친환경 단지를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 생산비가 많이 드는 각종 친환경 농법을 지원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도 친환경 농업용 퇴비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 13억원, 친환경·유기농 자재 지원 7억원,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장비·시설 지원에 6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1억12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인증 시 각종 비용과 수질검사비, 잔류농약 검사비 등 각종 비용을 100% 지원해 친환경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난 2010년 한림면에 정착한 이모씨는 “김해지역에 친환경농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주저하지 않고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다”며 “농가지원정책도 많아 다양한 친환경 재배방식을 접목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농가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도 활

발하다.

읍·면별 7개 지회를 둔 친환경연합회가 대표적으로 전범을 연합회장은 “200여명의 농가가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입해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농업교육 정보 등을 주고 받는다”며 “특히 시에서 연합회에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많은 만큼 김해에 정착할 친환경 농가라면 가입은 필수이다”고 말했다. 다시 관계자는 “2009년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특히 올해 9월 제1회 국제생태농업포럼 개최로 아시아·아프리카·유럽·남미 등 전 세계 친환경농업 전문가, 단체 등과 활발한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생태농업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경남도와 김해시가 주최하게 될 이번 국제행사를 계기로 김해시는 물론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궁영기/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길... 영양읍에 8050년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읍에 8050년

맛

사뭇 نرم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항에 들락대하며

심

자연과 벗하던 시인의 기쁨이 깃들다... 영양읍에 8050년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뵙수록 매력이 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참벽공원, 축복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견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관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지역경제 활성화 '익산다이로움' 이벤트 쏟아진다

연중 다이로움 특별이벤트 실시, 지역경제 회복 주력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3월분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20만원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500명에게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나카드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며 당첨금은 다음달 23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올 한해 동안 다양한 다이로움 특별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나카드사는 익산다이로움 금융협력사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익산다이로움 특별이벤트를 익산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인증 이벤트로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이용한 시민에게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720명에게 당첨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익산다이로움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로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의견이 72.1%로 가장 많아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다이로움 특별 이벤트 등 혜택을 드리는 맞춤형 정책을

연중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다이로움으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박준배 김제시장, 해양수산부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

김제시장은 3월 12일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지중해 프로젝트' 제3차 협의회에 참석했다.

'지중해 프로젝트'란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 바다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되는 연안 기초단체와 해양수산부의 정책 협업 릴레이로 금년에 인천·경기, 전남권역에 이어서 3번째로 서천군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과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북·충남의 11개 연안 기초단체장이 참석해 2022년도 신규 예산사업 및 중장기 정책건의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자리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신항만 내 신규어항 조성을 위한 어항구 설립 어촌 뉴딜 정책사업 해양환경 개선 등 김제시 해양수산분야 현안 사업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사업예산을 적극 요청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민선 7기 김제시장은 후반기 바쁜 일정 속에도 전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지역 핵심 추진 사업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송병호 새만금해양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한 건의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김제시가 새만금 국제 해양 중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맑고 깨끗한 봄날,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성료

올해 처음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고로쇠 완판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군에 따르면 맑고 깨끗한 운장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의 선물인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지난 8일에서 12일까지 '깨끗한 봄을 마시자'를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개최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2+1 프로모션 한정 판매 행사는 빠른 속도로 판매고를 올리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어 고로쇠 축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축제 마지막 날인 12일에 치러진 온라인 축제는 증산기원제, 고로쇠 축제 기원 및 홍보 영상 등이 각종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와 함께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돼 축제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의 축제들이 연달아 취소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펼쳐진 이번 제17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는 올해 진안군 축제

의 시작을 알리는 첫 축제이자 첫 온라인 개최이니만큼 큰 도전과 모험이었다.

하지만 위원회와 군과의 협업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얼룩진 마음들을 고로쇠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남귀현 고로쇠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처음으로 준비한 비대면 온라인 축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고로쇠 축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철/이희철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발판닫고 청렴도 향상 도모



전남 함평군이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공감사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공무원 스스로 공적 업무 처리과정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군은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등 3개 분야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전년도 도내 1위 달성도에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청렴 마일리지제도 확대 운영과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재정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감시하는 청백-e 시스템과 환경·건축·인허가 업무 등을 상·하급자가 중복 점검하는 자기진단, 공무원 개인 윤리 활동실적을 계량·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등의 기존 시스템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의 군수는 "공직비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운영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렴도 상승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조기석/기자

최훈 행정부지사, 육종 및 미생물 연구기관 현장행정 추진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12일 정읍시 첨단과학산업지구 내 위치한 농축산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첨단방사선연구소 육종연구센터를 방문해 육종 및 생명산업 핵심 연구기관에 대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최훈 부지사는 두 기관을 방문해 연구센터의 실험공간, 기업지원 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했다.

방사선연구소 육종연구센터는 방사선 육종을 통한 신제품 고효율 육종 개발, 연구기술 지원, 민간 보급 등의 기능을,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R&D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우수기술 보급, 미생물소재DB 구축, 교육컨설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육종연구센터 관계자는 "방사선 육종은 감마선 뿐 아니라 전자빔, 양성자빔, 중이온빔 등 다양한 방사선원을 이용해 유전학적 형질을 개선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하는 기술인데, 국내에서 방사선 육종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은 첨단방사선 연구소에 방사선육종연구센터가 유일하다" 설명했다.

또한, 농축산용미생물지원센터는 본 센터는 "농축산용 미생물분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미생물제품 인증지원사업'이 센터의 핵심사업으로 미생물 제품 연구와 전문연구·실용화 시설을 통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화 장비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더불어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최훈 부지사는 두 기관으로 인해 전북이 식품, 생명 공학분야 그리고 육종개발 등 농업, 생물자원 개발분야 연구와 함께 미생물융합기술개발, 기능성 소재 가공기술 개발 등 미래 바이오 소재 및 생물공정 기술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선두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두 연구기관의 발전과 성과로 인해 전북이 농생명 융합거점 지구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특성 살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동해시

동해시가 주거 취약 지역과 낙후된 골목길 기초 인프라 정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도심 상권 이전에 따른 구도심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2일 11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보고회를 개최하며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색있는 거리 조성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발한지구는 2024년까지 345억원을 투입해 쇠퇴한 구도심 발한지역에 개항문화 발전소, 마도로스의 거리, 묵호 창업혁신 지원센터, 청소년 창작거리 조성 등 항구 문화와 특화 가로를 조성해 지역경제 및 중앙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해시는 3월 15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며 주거 및 도시재생 업무의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으로 올 9월 사업이 완료되는 동호지구는 지난해 말 공적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현재 사업의 핵심 건물인 파란 발전소 신축공사를 35%가량 완성한 상태이며 삼화지구는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과 삼색삼화 플랫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소방도로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이 미흡한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근 '발한동 세대공감 향로마을'

이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되며 국비와 도비 20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기존의 묵호 언덕빌딩촌지구, 부곡 가마지기마을과 함께 도시취약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까지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의



최만식기자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순항

올해 12월 말 사업 마무리, 내년 상반기 중 개관 목표

홍천군은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천을 태하리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건립중인 장애인체육센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예정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센터는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군은 구상·설계 단계부터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총별 배치와 이용자 동선 계획 등을 결정했다.

1층에는 수영장, 수중치료실, 가족사

위실, 강사실이 들어서며 2층에는 체력 단련실, 체력측정실, 재활실, 관리사무실이 들어서게 된다.

3층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휴게실 등을 배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개관 이후 시설물 취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초대 수장 누가되나...관심 고조

춘천농어업회의소 4월 본격 운영 예정...오는 18일 초대 회장 선거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춘천시농어업회의소'의 초대 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춘천농어업회의소' 초대 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가입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 방식으로 결정했다.

현재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후보는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추진단장으로 활동중인 전기환씨와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차종원씨다.

후보들은 농어업회의소가 농업 문제의 영킨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며 농업계의 권익 및 실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 대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투표대상은 '춘천시농어업회의소' 가입회원 774명이며 오는 18일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반드시 배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해야 한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허용한다. 합중범 미래농업과장은 "춘천시농

어업인회의소 회장 선거는 가입회원 직접 선거인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지난해 11월 농업,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대의기구인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속적인 설명회를 통해 농

업인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 774명의 개인회원, 17개 단체회원, 9개 특별회원을 확보했다.

설립 발기인회는 지난 2월 농업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으며 이사 및 대의원 120명을 선출하고 창립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최재은기자



강릉시,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자"

강릉시가 자연재난 발생 시 보험 가입금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70% 이상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의 가입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지난해 '52.5% 이상' 지원하던 것을 '70% 이상'으로 늘려 시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률이 최대 30%로 낮아진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

하며 가입문의는 시청 재난안전과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 특성상 꾸준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강릉시민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상반기 소각시설 정기보수 실시

3.20~4.5일까지, 기간 중 쓰레기 소각 불가.주민협조 절실

양양군은 오는 3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상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보수는 소각시설의 24시간 연속가동에 따라 피로가 누적된 각종 설비의 점검과 보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능고장과 파손을 방지해 소각장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보수 내용은 소각로 연소실 내화물 교체, 파쇄기 대수선 등 19건으로 이번 보수를 통해 소각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각시설 정기보수 기간에는 쓰레기 소각이 불가하므로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주민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양양군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량은 일평균 45톤에 이르며 소각로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하루 28톤으로 미처 소

각하지 못한 쓰레기는 평소에도 압축포장 해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관되는 쓰레기는 타 기관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위탁 처리량에 한계가 있어 반입 쓰레기의 전량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평소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등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양양군, 지난해 1500만명 찾아 방문객 증가율 전국 1위

전년대비 10% 증가 최고...서핑해변, 낙산사 등 안전한 곳 선호

양양군이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방문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빅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 랩'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방문실태를 분석한 결과, 양양군이 2019년 대비 방문객 수가 10% 늘어남에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양양군을 찾은 외부인은 1,522만 6,306명으로 전년 1,385만 7,308명보다 136만 8,998명 증가했고 현지인도 전년도 722만 7,528명보다 132만 876명 늘어난 854만 8,404명인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방문객은 전년 5만 1,820명보다 4만 2,061명이 감소한 9,759명이 양양을 찾아 코로나19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1년 동안 양양군의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은 청정양양에서 서핑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낙산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경남 밀양시가 각각 7% 증가했고 전남

고흥군 6%, 부산광역시 기장군 5%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발맞춰 서핑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준비하는 등 관광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기반으로 올해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삼척시,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삼척시는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202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에 직접 찾아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보다 많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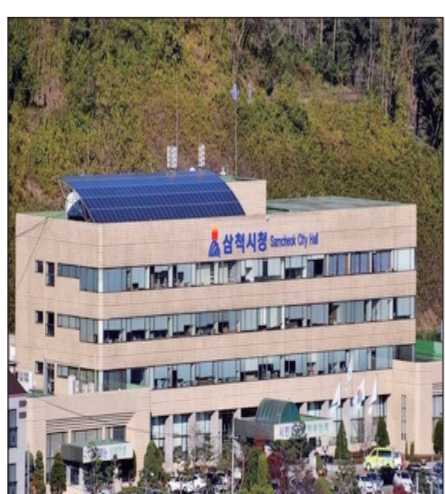
본 사업은 삼척시에 활동 중이면서 단체등록한 문화예술단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9일까지 시청 문

화공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삼척시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해 공연 1회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의 공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공연예술의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참여단체들과 행사일정을 조율하며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최만식기자



정선군, 국내외 아리랑 교류 거점화 위한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 추진

정선군은 아리랑의 원조인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내·외 아리랑 교류의 거점화를 위해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정선아리랑이 지난 1971년 11월 16일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군에서는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인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전승·보존을 위해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비롯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의회 의결 등 조례공포 및 시행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에서는 정선아리랑의 날이 지

정되면 기념식과 함께 매년 열리고 있는 정선아리랑제를 국내외 아리랑 및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국가적인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선아리랑이 국내는 물론 세계속 아리랑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체와 세대를 거쳐 다양한 문화예술 언어로 창작,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문화·축제·교육·공연 등 다양함을 접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전승·보존은 물론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아리랑 교류의 중심 거점 도시인 아리랑의 고경 정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괴산군, 곳곳에서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펼쳐



충북 괴산군에서 봄을 맞아 환경정화 활동이 한창이다. 갑물면은 지난 11일 '내가 만드는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함께해요. 클린데이' 활동을 진행했다. '함께해요. 클린데이'는 갑물면 마을 주민 및 각 단체 회원들이 클린봉사대가 돼 월 1회 본인들이 맡은 책임구역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는 활동이다. 이날 행사는 갑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갑물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책임구역과 22개 마을을 도로 주변을 청소를 했다. 이날 회원들은 "클린데이 활동을 통해 깨끗한 갑물면 만들기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

으로도 갑물면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손기철 갑물면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갑물면을 만들기 위해 클린데이에 참여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감사하다"며 "갑물면 주민 모두가 협력해 괴산사랑운동 확산과 갑물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광면에서도 '아름다운 문광면 만들기'의 일환으로 클린봉사대가 환경정화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문광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과 문광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광면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문광교로 들어가는 도로변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쓰레기 중 빈병, 빈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선별했다. 이현주 문광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대정소로 괴산사랑운동을 실천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광면, 늘 오고 싶은 문광면을 만들기 위해 면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정호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환경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좀 더 살기 좋은 문광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새롬동,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간담회 개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이 12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사,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공유, 독거노인 서비스 연계·지원 방안, 위급한 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돌봄맞춤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부, 건강점검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이다. 현재 새롬동은 독거노인 21명이 생활지원사 5명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노인돌봄맞춤서비스 해당되는 노인가구 228명인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새롬동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

과 함께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강욱 새롬동장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일하는 생활지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환경기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으로 지역 내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

시민을 위한 정책, 스스로 연구해 연구용역 결과의 효율성 제고

천안시는 예산절감과 더불어 조직 내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공무원의 연구능력을 활용해 연구용역 결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용역시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과제는 시정현안 분야와 현황 또는 실태조사와 같이 공무원의 현장경험을 통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 등이 대상이다. 올해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에 따른 천안시 아동인권 실태조사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천안12경 재선정 용역 클로렐라 사용 농업토양환경 변화 및 효과 연구이다. 이번 연구용역에 따라 관내 아동의 인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기존 천안12경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관광 활성화도 모색한다. 또 클로렐라 배양액의 농업적 활용도 검토와 효과를 연구하게 된다. 담당부서는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12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행 결과를 평가받는다. 박상돈 시장은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용역 결과의 실행력을 높일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연구하는 업무풍토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예산군립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단체배부 신청 접수

3월 16일부터 예산군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선착순 신청 가능

예산군립도서관은 3월 16일부터 북스타트 책꾸러미 단체배부 신청을 접수한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워주고 부모에게 필요한 육아 및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무료로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사업이다. 군립도서관은 지난해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해 지난 2월 개별신청을 받아 책꾸러미를 배부했다. 책꾸러미 단체배부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예산군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북스타트 3단계 중 1개의



단계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 당 최대 신청가능 인원은 30명이다.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예산군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모님들의 육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안전하고 쾌적한 스쿨존 조성 '좋아요'

계룡시가 개학기를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요 도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17개소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통학길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변과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음란·퇴폐행위 전단 및 벽보 등이다. 시는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 불량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육외광고협회 계룡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수거와 함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올바른 육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된 게시대 외에 게시하는 광고는 모두 불법광고물인 만큼, 시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대한 광고물 정비를 강화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검색

최재형 4대손, 인천시 나눔의료 혜택으로 무사히 수술 받고 퇴원

해외환자 유치 위한 나눔 의료사업과 연계, 의료비 지원 통해 무사히 수술 마쳐

인천시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 의료사업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긴급 수술과 치료를 도왔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4대손 최일리아씨가 인천시 나눔 의료사업의 혜택으로 신장계통 수술을 무사히 받고 3월 12일 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1860년 함경북도 출생인 최재형은 러시아 시베리아로 이주한 후 국민회 조직, 의병 모집, 한민학교 설립과 함께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는 등 러시아와 연해주 독립운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최일리아씨는 신장계통 이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 수급대상이 아닌데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치료

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전해졌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최일리아씨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나눔 의료사업과 연계해 돕기로 하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협업체 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최일리아씨는 지난 2월 19일과 2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방문해 수술 전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고 3월 4일 로봇을 이용한 신우성형술 수술을 무사히 받았다.

수술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 따라 3월 12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됐다.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나눔 의료사업은 인천시가 의료기관과 협업체 해의 중증질환 환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초청해 치료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환자 보호와 의료비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해 주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8년 이후 카자흐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 환자 10명이 나눔 의료 혜택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는 의료혜택이 필요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인천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나눔 의료사업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치료에 도움을 주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해외 중증환자를 돕고 사회 각계각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임실문화원장 이·취임식 열려

정기총회 개최...최성미 원장 이임, 김태진 원장 취임

임실문화원이 지난 11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총회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임실문화 발굴과 임실의 역사 재발굴 등을 위해 헌신해온 최성미 문화원장의 임기가 끝나, 단독 후보로 등극한 김태진 씨가 총회 의결을 통해 새로운 문화원장으로 선출됐다.

새롭게 선출된 김태진 문화원장은 임실고등학교 교장, 임실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그동안 임실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문화원



의 기틀을 다져주시는 최성미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문화원의 각종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왔으며 앞으로도 임실군의 문화적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자원봉사클럽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는 지난 3월 10일 2020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지회로 선정되어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지회는 2011년부터 총 12개 클럽을 운영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4개 클럽코치 및 회원들이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어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관내 지역 명소를 찾아 자연친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지회로 선정된 데 대해 정남훈 지회장은 "그동안 열심히 해준 담당자 및 클럽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원봉사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민식/기자



예산군립합창단, 임성민 지휘자 신규 위촉

"충남 넘어서 세계적 역량 갖출 수 있도록 노력"

예산군은 지난 11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예산군립합창단 임성민 지휘자를 신규 위촉했다.

임성민 지휘자는 인천 남동구여성합창단, 울진군립합창단을 비롯해 다양한 합창 지휘경력을 가지고 있어 군립합창단의 기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산군립합창단은 2004년 5월 창단돼 충남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등 12차례 수상을 비롯해 전국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20차례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충남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다.

지휘자 선발은 총 7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면접을 거쳐 임성민 지휘자가 최종 선발됐다.

임성민 지휘자는 "예산군립합창단이 충청남도를 넘어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립합창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남4-h연합회, 제60대 김기명 회장 취임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핵심 조직 만들어 갈 것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경상남도 4-h연합회 제60대 신임 회장으로 하동군 청년 농업인 김기명씨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기명 신임회장은 지난 2014년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부터 하동군4-h연합회 활동을 시작해 경상남도4-h연합회 사업국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청년4-h 조직 활성화와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제60대 경상남도4-h연합회 신규 임원진으로는 김기명 회장을 필두로 부회장 차승민씨와 안시내씨, 감사 백상현씨와 정승민씨가 지난해 연말총회를 통해 선출됐으며 각 임무를 맡아 앞으로 2년간 연합회를 이끌어 간다.

김기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덕·노·체 4-h이념을 계승하고 청년 농업인 핵심 조직으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고 비대면 소통·협업을 강화해,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남4-h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재민 도 농업기술원장은 "우리 농업·농촌의 차세대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대표하는 조직인 청년4-h를 책임지고 이끄는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청년들이 경남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예산군립합창단, 임성민 지휘자 신규 위촉

"충남 넘어서 세계적 역량 갖출 수 있도록 노력"

예산군은 지난 11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예산군립합창단 임성민 지휘자를 신규 위촉했다.

임성민 지휘자는 인천 남동구여성합창단, 울진군립합창단을 비롯해 다양한 합창 지휘경력을 가지고 있어 군립합창단의 기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산군립합창단은 2004년 5월 창단돼 충남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등 12차례 수상을 비롯해 전국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20차례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충남을 대표하는 합창단이다.

지휘자 선발은 총 7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면접을 거쳐 임성민 지휘자가 최종 선발됐다.

임성민 지휘자는 "예산군립합창단이 충청남도를 넘어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립합창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함안군, eone그룹 조성문 회장에 명예군민증 수여

함안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군수실에서 eone그룹 조성문 회장에게 명예군민증과패를 수여했다.

군에 따르면 조성문 회장은 우리나라와 몽골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몽골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발판으로 우리 군에서 건립하는 이태준 기념관에 전시할 몽골 내유품 및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또한, 몽골의 소외계층과 불우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애국지사 이태준 선양사업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함안군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함안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조근제 함안군수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해주신 업적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군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함안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서울도서관, 故박완서 타계10주년 '박완서 문학다시읽기' 비대면 인문학강좌

서울도서관은 故박완서 작가 타계 10주년을 기념하여 '박완서 문학 깊이-다시 읽기' 비대면 인문학 강좌를 3월 24일~4월 14일, 매주 수요일 저녁 총 4회 운영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박완서 문학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방민호 교수의 깊이 있는 강연과 함께 작품에서 가장 공감되는 문장을 서로 이야기하고, 작품 속 공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등 수강생과 강연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강좌로 운영된다.

강연자 방민호 교수는 2017년 『서울문학기행』을 집필하였으며, 『경성모더니즘과 해방 후 8년의 문학사』를 연구하였다.

3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설가로 손꼽히는 박완서 작가의 작품을 깊이 있게 살펴 보면서 작품 속 시공간을 탐색하는 등 매주 다른 작품과 주제로 총 4회의 강좌가 진행된다.

1~2회에서는 박완서 작가의 개인적 삶을 보여주는 소설 『나무』, 『목마른 계절』과 작가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한국사회를 그린 소설 『오만과 몽상』을 깊이 있게 읽어볼 계획이다.

3회는 박완서 문학에서 만날 수 있

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명동, 계동 등 시·공간을 탐색하며, 마지막 4회에서는 수강생들이 박완서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1~3회 강의에서 만난 작품 중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나 문장을 공유하면서 작품을 재해석하는 공감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설 속 시공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인증하는 등 그때 그 시절로 여행을 떠나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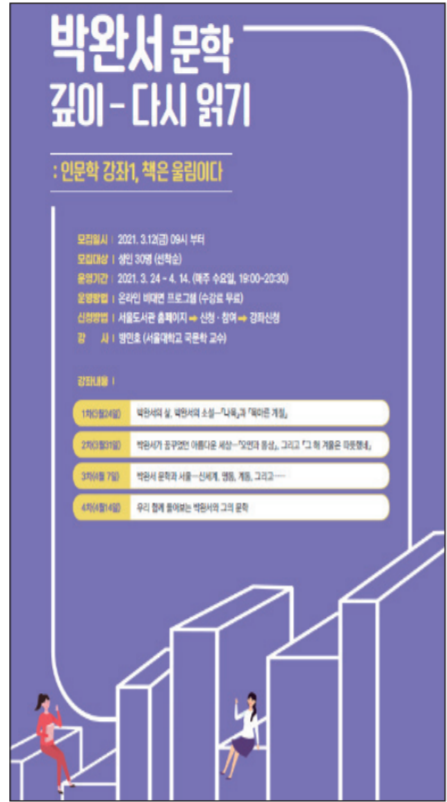
서울도서관은 이번 '박완서 문학 깊이-다시 읽기(부제: 책은 울림이다)'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 인문학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택트 여행을 떠나자(부제: 책은 여행이다)'(5~6월), 단테 사후 700주년을 기념하는 '단테문학 읽기(부제: 책은 연극이다)'(8월), 김수영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김수영 시 노래하다(부제: 책은 노래이다)'(10~11월)' 등이다.

강좌 수강 신청은 3월 12일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 신청·참여 → 강좌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강좌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울도서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故박완서 문학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번 강연이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라는 박완서의 소설 『나무』속 문장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 각기 다른 주제의 비대면 인문학 강좌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의성군, 2021년 예술가 일촌맺기 프로젝트 참여 청년예술가 모집

시골에서 살고 싶은 청년예술가를 찾습니다

의성군은 의성 살아가기 사업의 일환인 2021년 '예술가 일촌맺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예술가를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 '예술가 일촌맺기' 프로젝트는 의성과 청년예술가를 이어주고 의성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청년예술가가 지역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군은 사업기간동안 참여 청년예술가에게 주거공간과 거주지원금을 제공하며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의성 내 문화예술 관련 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가 일촌맺기'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는 개별 또는 팀 단위로 4명을 모집하며 모집 장르는 예술과 관련된 전범위적인 장르이다.

모집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등의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와 예술의성 협동조합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참가자 최종선정 발표는 비대면 인터뷰 심사를 거쳐 예술의성 협동조합 블로그를 통해 발표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 살아가기"를 통해 청년예술가가 의성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맞춤형 정주여건도 마련해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러' 2021공모전시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러'에서는 2021년 03월 17일 ~ 2021년 03월 28일까지 2021 '아트뮤지엄 러' 공모 선정 작가 최선 개인展 - '시간의 빈틈'을 개최한다.

마음과 감각에 의해서 떠오르는 내밀한 형상을 기물이나 점들로 표현하는 작가 최선이 말하는 '시간의 빈틈'은 끝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 잠깐 멈춰선 순간에 느껴지는 세상과 분리된 작가만의 시공간을 의미한다.

숨 가쁘게 달려가는 시간의 흐름이 잠시 정지된 상황에서 자아의 현

상태와 모습을 솔직하게 통찰하고 자각하는 것이다.

작가는 멈춰진 시공간 안에서 홀로 오염되고 희열하며 그 감정과 환영들을 다양한 형상으로 짓고 고치면서 만들어낸 내면의 이야기를 작품에 녹여내었다.

그리고 겹겹이 쌓아 올린 색감과 그 위에 보이는 형상들을 통해 치열한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언제나 자신을 지켜봐 주는 초월적 전지적 존재자가 바라보는 작가의 삶은 25점의 작품에 담아 전시한다.

작가는 관객이 작품 안에서 자신

이 만났던 전지전능한 존재를 함께 느끼고 마주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내게 있어 시간의 빈틈은 시간의 흐름이 멈춰선 순간이다 세상이 멈춰 있고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시간의 빈틈이며 나만의 시공간이다 이제 여러분을 나의 시간의 빈틈 속으로 초대하려 한다 그 안에서 우리 삶에 시달린 바람을 불어 넣는 무엇인가를, 그리고 시린 가슴을 덮어주고 단단하게 설 땅이 되어주는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성율기자

강북문화재단, 마티네 콘서트 I '우리가 사랑한 음악들' 개최

강북문화재단은 마티네 콘서트 I '우리가 사랑한 음악들'을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 네이버TV, 유튜브 강북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번 콘서트는 강북문화재단의 2021년 첫 번째 기획공연이다.

재단은 이번 무대를 위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판페라콰르텟 디에스를 초청했다.

디에스는 팬텀싱어 시즌 1에 참가했던 바리톤 박정훈과 함께 테너 정주영, 테너 이성진, 베이스바리톤 박진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존 판페라 앙상블이 들려줬던 이태리나 스페인 노래에서 벗어나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해외 유명 팝 음악, 월드 뮤직, 우리 가요 등 다채로운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송은혜가 특별 출연한다.

송은혜는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 8'에 출연해 미국의 뮤지컬 배우 브래드 리틀과 함께 공연함으로써 화제가 된 바 있다.



조상순기자

꿈 속에서 그리운 이를 만나다

대전시립박물관이 3월 '방구석 박물관'으로 '선세기몽첩'을 발행한다.

'선세기몽첩'은 은진송씨 집안에서 내려오던 꿈과 관련된 시를 모아 첩의 형태로 책을 만든 것으로 '선조들의 꿈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다.

동춘당 송준길, 문곡 김수향, 우암 송시열, 소대헌 송요화 등 여러 유명한 학자들의 꿈을 기록한 시[記夢詩]가 실려 있는데, 송요화의 후손 때 첩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1672년 1월 11일 송준길이 꿈에 퇴계 이황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꿈에서 깬 뒤에도 여운이 남아 이를 시로 남겼다.

송준길 외에도 역시 꿈속에서 송준

길을 만난 김수향의 기몽시, 꿈속에서 김수향을 만난 송시열의 기몽시가 실려 있어 옛 선현들의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달의 활동으로는 어젯밤에 꾸는 꿈을 떠올리며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제안한다.

꿈은 욕망의 표출이라고도 한다. 매일 밤 꾸는 꿈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 애가 보지 못했던 곳에도 자유롭게 가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옛 선비들과 같이 꿈에서나마 이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대전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교육신청 계

시판에서는 박물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퀴즈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시립박물관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작년 매회 5분 만에 마감되며 인기를 끌었던 '집콕탐험대'를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3월의 주제는 '공룡화석 발굴하기'이다.

성원에 힘입어 참여인원을 확대했으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접수를 개시한다.

대전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고정화기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회

태그: 봉암도전석탑, 고추밭리기, 반딧불이천문대, 은행나무, 시서적지

배민 김봉진, 외식업에 200억 지원..저소득층 자녀에 노트북

재산 환원 약속 첫 이행안 발표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의 창업자인 김봉진(45) 우아한형제들의장이 외식업 운영자들의 의료·생계비와 자녀 대학 장학금으로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고성능 노트북 1만 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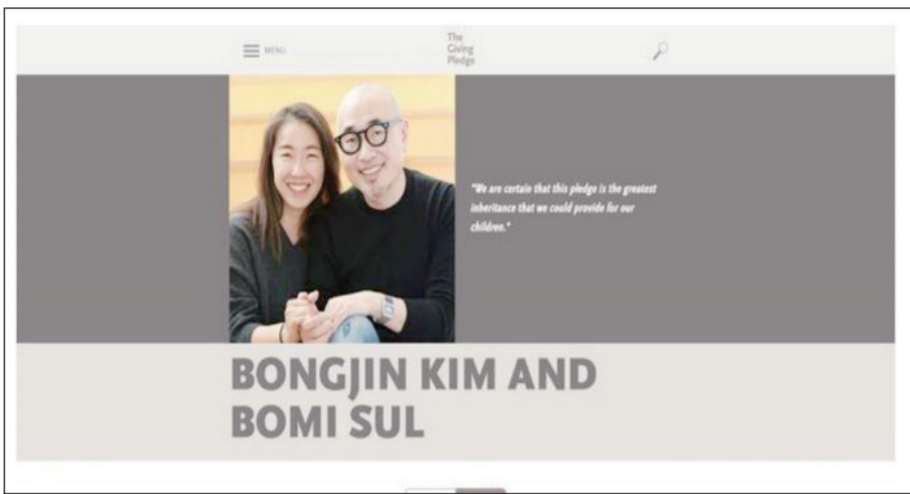
김 의장은 부인 설보미씨와 함께 12일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 사회 환원의 첫 구체적 실행안을 발표했다.

그는 "외식업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치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년에 걸쳐 사재를 출연해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배민 광고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식업 운영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학창 시절 식당을 하시던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목욕탕에서 쓰러지셔서 어머니 혼자 참 많이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다"며 "월급이 아닌 하루하루 매출이 중요한 외식업 사장님들께 이런 일이 참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외식업 운영자들의 자녀를 위한 국내외 대학 장학금으로 역시 5년에 걸쳐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기금을 마련했다. 기금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사양 노트북 1만 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 격차와 학습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지원받은 일부 노트북은 아쉽게도 사양이 낮거나 배터리 수명이 낮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노트북은 옛날의 참고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라며 "사양은 i5급으로 삼성 이온2와 LG 그램 시리즈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회 환원 첫 시작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와 외식업 사장님들의 지원을 준비했다"며 "어떤

곳에 지원할지 참 선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우선은 기존에 했던 우아한영력선순환기금(교육 불평등 등 문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고독사 문제), 라이더(배달대행기사) 의료비 지원 기금 등에 집중하며 공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 사업에 집중해 저희 부부가 선언한 재산 절반 사회 환원이 5천억원이 아닌 더 큰 가치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기빙플레이(The Giving Pledge)'의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하며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홍남기 "LH 사태, 부동산범죄와 전쟁 각오로 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수행과 투기근절 방안,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4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책 마련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곧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한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다.

기존 주택공급 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선정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업성장 가속화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혁신클러스터기반조성, 기업비즈니스역량강화 등 2개 분야로 구분해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생태계를 체계화, 고도화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업부에서 작년 10월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2.0, 2030 전략과 비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올해 기업비즈니스 역량강화 분야에 선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입주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장비 및 소프트웨어, 시설 등 기반 지원, 국내·외 전문가 지원 및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 지원, 기술 및 종합 지원 등 기업지원, 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지원 등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 해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쿠팡, 5조 실탄 확보 성공..김범석 꿈 '전국 로켓배송 세상' 성큼

쿠팡이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면서 약 5조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지분 가치도 10조원에 육박하면서 앞으로 투자 여력은 더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아마존'을 꿈꾸는 쿠팡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70% 수준인 '로켓배송'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은 물론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신사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쿠팡은 11일(현지시간) 거래 첫날 공모가 35달러보다 약 41% 오른 49.25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한 때 공모가 대비 97.1% 급등한 69달러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 전국민, 쿠팡 없이 못 살게... 해외 진출 대신 당분간 국내시장 전진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김범석 의장은 쿠팡을 창업한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다. 뉴욕증시 상장으로 이같은 꿈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김 의장이 "고객들이 감동할 서비스를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당분간은 한국 고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내 시장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다.

김 의장은 이날 뉴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 규모는 절대 작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시장에 전념하겠다는 두번째 이유다.

국내 이커머스시장 규모는 지난해 16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5년에는 270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쿠팡의 거래액은 20조원 수준에서 35조원대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쿠팡의 꿈은 단순히 이커머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마존처럼 온라인 세계의 절대강자를 꿈꾸고 있다. 한국 시장 규모가 절대 작지 않다고 설명한 진짜 이유다.

쿠팡은 지속적인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고 있다. 당장 흑자전환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적자가 아니라 투자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계획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된 적자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는 이번 뉴욕증시 상장을 통해 투

자자들에게 검증도 받은 셈이다.

그는 "한국은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가 장악하지 않은 유일한 시장"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벽배송 같은 기술 혁신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소프트뱅크로부터 총 30억달러(3조3000억원)를 수혈했다. 이는 국내 30개 도시에 170개 이상 물류센터 건설을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전국 가구의 약 70%가 쿠팡 물류 시설 10km 이내에 있을 정도다.

쿠팡은 우선 5조원으로 전국 곳곳에 상품 보관부터 포장·출하·배송을 처리하는 풀필먼트 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제천·김천·대구·광주 등에 신규 시설이 추진 중이다.

최근 가장 큰 관심사인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그는 "우리는 기준이 높고 문화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많은 분석과 고민을 통해 옳다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 한국판 '아마존' 꿈 앞으로 한걸음...쿠팡이츠·쿠팡플레이 강화 속도 업계에선 쿠팡의 신사업 투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강화가 꼽힌다. 지난해 등장한 쿠팡플레이(Coupang Play)는 500만명에 달하는 로켓와우 유료회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쿠팡이 제 시하는 콘텐츠에 따라 쿠팡플레이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목받는 쿠팡이츠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시장 1위 배달의민족에 대적할 수 있는 체력을 다지기 위한 투자가 적실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간편결제 시스템 쿠팡페이 움직임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 의장은 "많은 기업이 우리와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면서도 "(쿠팡은)기술 투자 측면에서 독창적인 회사"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경쟁사 행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신세계·네이버·CJ가 손잡고 쿠팡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카카오 역시 이베이코리아 인수 후 도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최대 IT공룡 네이버와 카카오와의 경쟁은 힘든 싸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전통의 유통 강자 롯데 역시 현재 상황에 손을 놓고만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져야 이익 전환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며 "현재 경쟁사의 협력과 인수합병은 쿠팡의 성장과 투자를 막겠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노동 환경 개선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쿠팡 직원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뉴욕증시 상장으로 쿠팡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자 사망에 대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정동혁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시흥시 올해 첫 추경 1조 7410억

본예산 대비 1,883억 증액

시흥시는 1조 7,41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9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 1조 5,527억원 대비 약 1,883억여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1,869억원이 증가한 1조 2,843억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항목과 코로나 방역 등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 등을 위한 경비를 우선 편성했다.

각 특별회계별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용자를 통해 재정을 적극 투입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해 보건소 약품 및 병의원 점점비 지원 12억원 해외입국자 수용 및 자가격리자 생활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8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17억원 중소기업육성기초보전금 등 중소기업지원에 9억원 법인 택시 운수중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원을 반영했다.

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출산장려금 등에 129억원 관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에 10억원 등도 포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와 보육기반 강화를 위해 아이누리 돌봄센터 확대 및 공립형 지

역아동센터 구축 등에 8억원을, 시민의 일상회복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누리, 시흥갯골축제 개최 등에 13억원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학습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학습플랫폼 및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등에 8억원도 포함됐으며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맞춘 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43억원 등계·배곧·목감 어울림센터 건립 190억원을 편성했다.

시흥시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안은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거쳐 오는 26일 확정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지원 사업 추진

함안군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로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및 농작업 근로자의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을 제외한 보험료의 67%를 지원하며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업 중 사고에 대비해 많은 농업인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다방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면 안내, 연론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재해보험료는 기본형 보험료 10만 1000원부터 산재형 19만 4900원의 보험료 중에서 67%를 지원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강영훈기자



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3월 15일 ~ 3월 31일 ... 경유차 매연 중점 단속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 및 수시 단속을 병행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중 노상 단속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용인시 기흥구, 개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실시

용인시 기흥구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안전점검은 초등학교 41개소를 비롯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66개소 등 총 107개소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진행된다.

점검 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및 4대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지도·단속해 올바른 주차문화

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교차로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경기도, '봄철 산불방지 총력' 11개 단속반 꾸려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3월 13일 ~ 4월 18일 31개 시군 대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경기도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시기인 봄철을 맞아 오는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주변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를 중심으로 살펴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도내 산불 213건 중 입산자실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88건으로 41%를 차지했었다.

올해는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해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속반 11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



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집중할 예정이다.

차량 및 헬기를 활용해 산불 감시 및 계도 방송을 지속 실시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날에는 마을이장에게 위험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제작한 '경기도 산불 예방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가 많은 대형마트 59개점, G-버스 8,000

여대, SNS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양주시 신선리 등 도내 473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산불 위험도 높고 자칫 산불이 확산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며 "조금만 관심이 산불을 줄일 수 있는 큰 힘이 되니, 소각이나 취사행위를 절대로 금해주시길 것을 도민 분들께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서천군, 봄 이사철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서천군은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39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뺏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

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요즘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간판에 허가번호를 표시한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라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내촌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새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내촌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0일 새학기 등교에 따른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촌면 시내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내촌파출소와 청소년지도위원, 관계공무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한 식당, 편의점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만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했다.

이호규 회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지도 점검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성모 내촌면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적극 동참해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물품을 판매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업주 및 종사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천안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부정유통 시 과태료 부과, 운영시스템 이상거래 탐지로 부정유통 시도 차단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과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를 편성,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 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

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반복 결제 되는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한다.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타 지자체들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지만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라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 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거제시,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거제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을 도입,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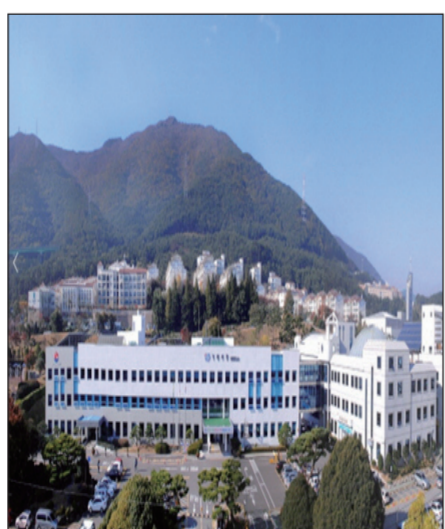
'전화폭탄'이라는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일수·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발신 회수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해 자동 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 행위 중단 및 자진 철거 하도록 계도 하며 불법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 매년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시 도시계획과 박원석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부착해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내 차량 타지 불법주차도 통보받는다.

동안구 11일·만안구 15일 (주)아이엠시티 업무협약 체결

안양에 차 적을 둔 차량이 타 지방에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도 사전 단속을 통보받는다.

과태료 부과여부 또한 당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가 전국최초로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 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기존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한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서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앱'을 설치해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국 어디서나 주정차 단속여부를 1일 3회까지 통보받음으로써 과태료 부과상태를 당일 파악할 수 있다.

단속알림 통합서비스는 특히 위택스와도 연계돼 불법주정차 뿐 아니라 버스전용차선 위반, 교통법칙금 및 과태료,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의 여부도 바로 알 수 있고 시스템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임을 지역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만 문자로 통보받았다.

과태료 부과여부도 5~10일 정도 후나 고지서로 통보받아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인 (주)아이엠시티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만안구는 오는 15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안양시는 협약 후 보안성검토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중은 동안구청장은 코로나시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예방위주의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종균/기자

'나 혼자 산다' 김지훈, 수준급 킥복싱 실력 공개! 관장님의 자비 없는 하드 트레이닝 앞 속수무책!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김지훈이 평소 쌓아온 킥복싱 실력을 공개한다. 관장님의 자비 없는 하드 트레이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김지훈은 아는 외국어를 총동원 해 애원했다고 해 킥복싱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늘(12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기획 안수영 / 연출 허항 김지우)에서는 열정 만학도 김지훈의 수준급 킥복싱 실력을 공개한다.

언어 사교육에 이어 운동 사교육에 나선 김지훈은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킥복싱 실력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스쿼트와 출렁기로 가볍게 몸을 풀 김지훈은 샌드백을 치기 시작, 속도감이 느껴지는 빠른 펀치와 엄청난 타격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링 위에 올라선 김지훈은 "지옥의 시간이 왔다"며 비장하게 글러브를 끼고 관장님의 지도 아래 트레이닝을 이어간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관장님의 공격을 받아내던 김지훈은 학원에서 배웠던 외국어를 총동원해 애원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교육 열정남의 면모를 드러 내 웃음을 유발한다.

김지훈은 "아직 쓰러지지 않는다"



며 계속되는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도 오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열정 오펝이'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배우에 대한 열의로 중무장한 '프로 배우러' 김지훈은 "배우는 숙명"이라며 사교육 열정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밝혔다고 해 과연 그가 이토록 사교육에 진심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

증을 더한다. 사교육 열정남 김지훈의 수준급 킥복싱 실력은 12일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들의 다채로운 무지개 라이프를 보여주는 싱글 라이프 트렌드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최강 믿고 보는 배우 총출동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2021년 하반기 방송 예정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극본 제인/연출 이길복/크리에이터 글Line&강은경/제작 삼화네트웍스, UAA/이하 '지금, 헤')는 '이별'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쓴 이별 액츄얼리티다. 송혜교, 장기용, 최희서, 김주현, 연기력, 매력, 화 제성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 확정 소식을 전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지금, 헤'를 더욱 특별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줄 출연 배우 라인업이 공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신뢰가 치솟는, 세대 불문 최고의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더욱 기대를 높인다.

먼저 박효주(전미숙 역)와 윤나무(곽수호 역)가 부부 호흡을 맞춘다. 박효주는 하영은(송혜교 분), 황치숙(최희서 분)과 여고 동창생으로 현재는 전업주부. 결혼 후 현모양처 행세 중이다. 윤나무는 극중 박효주의 남편이자 김주현(석도훈 역)의 회사 직원 곽수호 역을 맡았다. 상남자임을 자부하지만 눈물도, 정도, 겁도 많은 남자. 박효주, 윤나무 두 명품 배우의 부부 호흡이 기대된다.

주진모(황대표 역), 차화연(민혜옥 역), 남기애(강정자 역), 최홍일(하택수 역) 중견 배우 4인은 '지금, 헤' 주인공들의 부모로 등장한다. 주진모가 분한 황대표는 송혜교(하영은 역) 최희서(황치숙 분)가 일하는 패션회사 더원을 만든 자수성가형 인물. 극중 최희서의 아버지이기도 한 황대표는 냉정함으로 극의 긴장감을 높여줄 전망이다. 이어 차화연은 장기용(윤재국 역)의 어머니 민혜옥 역을 맡았다. 민혜옥은 인자하고 겸손한 사모님. 하지만 남모를 상처를 품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남기애와 최홍일은 각각 극중 송혜교의 어머니 강정자, 아버지 하택수 역을 맡았다. 남기애가 분한 강정자는 젊은 시절 애 엄마가 된 뒤, 여전히 가슴속에 꿈을 품고 있는 인물. 문화센터를 도장까지 중으로, 딸 사랑이 꿈꿔온 엄마다. 하택수는 정년을 한 달 앞둔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다. 천성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아내 강정자의 속을 태우는 남편이다.



이외에 '지금, 헤'를 더욱 다채롭게 할 막강 배우들이 있다. 극중 송혜교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더원의 직원들 장혁진(고광수 역), 송유현(오인아 역), 이주명(남나리 역)과 석도훈의 회사 비전피알의 직원 서민경(기은세 분)이다.

더원 생산부장 고광수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무조건 만지부터 걸어 별명이 '딴지일보'인 인물이다. 이어 오인아는 더원의 세컨 브랜드 '라몽'의 디자인 팀장으로, 착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뒤통수치기의 달인이자 핏병유발자이다. 또 남나리는 극중 송혜교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그녀를 믿고 따르는 후배이다. 마지막으로 서민경은 비전피알의 마케팅팀 대리도 맡고 있고 푼한 커리어우먼이다. 이 캐릭터들은 '지금, 헤'에서 때로는 화려하고, 때로는 치열한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려내며 극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

으로 기대된다. 송혜교, 장기용, 최희서, 김주현에 이어 남녀불문, 세대불문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2021년 하반기 최고의 화제작이 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기대된다.

한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2018년 드라마 데뷔작 '미스티'로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제인 작가와 '자이언트', '별에서 온 그대', '배가본드' 등 20여년 간 최고의 촬영감독으로 활약하며 눈부신 영성미를 보여주고 2020년 최고 시청률 27.1%를 기록한 인기작 '낭만닥터 김사부 2'를 통해 탄탄한 연출력까지 입증한 이길복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미스티'와 '부부의세계'를 크리에이티브한 글Line&강은경이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4월 첫 촬영을 시작하며, SBS 하반기 편성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로스쿨' 박혁권-안내상-정원중-길해연-우현-오만석-이천희, 막강 신스틸러 군단 출격 준비 완료

박혁권, 안내상, 정원중, 길해연, 우현, 오만석, 이천희 등 이름만 들어도 강렬한 연기 파위가 느껴지는 배우들이 JTBC '로스쿨'에서 막강 신스틸러 군단으로 뭉쳤다.

JTBC 새 수목드라마 '로스쿨'(연출 김석운, 극본 서인, 제작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피닉스, 공감동하우스)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 드라마다. 피, 땀, 눈물의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는다. 앞서 출연을 확정 지은 김명민, 김범, 류혜영, 이정은, 이수경, 이다윗, 고윤정, 현우 등 흡입력을 데 없는 라인업을 선보인 가운데, 오늘(12일) '로스쿨' 측이 박혁권, 안내상, 정원중, 길해연, 우현, 오만석, 이천희의 스틸컷을 공개하며 극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베테랑 배우들의 활약을 예고했다.

먼저, 탄탄한 연기 공력을 자랑하는 박혁권은 캠퍼스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수사할 검사 '진형우' 역을 맡았다. 검사 시절부터 눈엣가시로 여겼던 양종훈(김명민) 교수가 사건에 얽혀있다는 걸 알게 된 뒤, 하이에너치로 집요하게 그를 압박, 긴장을 유발할 예정이다. 장르를 불문하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안내상은 검사장 출신 한국대 로스쿨 겸임 교수 '서병주'를 연기한다. 법에 관해서라면 단연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는 검사 시절 양종훈이 존경했던 선배였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양종훈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가 된다.

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베테랑 배우 정원중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국회의원 '고형수' 역을 맡았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는 냉혈한 캐릭터다. 법의 맹점을 노리며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예정이다. 한계 없는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하고 있는 배우 길해연은 한국대 로스쿨 원장 '오정희'로 분해 또 다른 변신을 꾀한다. 사건 발생 이후 어수선해진 한국대 로스쿨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관 출신다운 단단한 평정심을 발휘하며 사건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노련한 지략가의 면모를 보인다.

대체 불가한 매력으로 작품마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배우 우현은 로스쿨의 복사실을 운영하는 '성동일' 역을 맡았다.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깨알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며, 극을 더욱 다채롭게 채워나간다. 부원장 '강주만'으로 돌아온 오만석은 실무가 출신이 아니 라는 콧

플렉스 때문에 '썩대스러운'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교수. 이에 학생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2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로 반가운 소식을 전한 이천희는 로스쿨 사건 담당 국선 변호사 '박근태'로 분한다. 무성미한 듯 보이지만 든든한 변호 실력을 갖췄고, 여기에 너스레 좋은 생활 연기까지 더해 극적 재미를 선사한다.

제작진은 "박혁권, 안내상, 정원중, 길해연, 우현, 오만석, 이천희 등 내공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뇌리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들이 '로스쿨'에 총출동했다.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속내와 사연으로 풀기 어려운 전개를 이끌어갈 예정이다"고 전하며, "믿고 보는 베테랑 배우들이 함께하는 만큼 1분도 눈을 땄 수 없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최적의 호흡을 만들어 낼 본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로스쿨'은 '눈이 부시게',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송곳' 등 작품성과 화제성을 모두 휘어잡은 작품들을 통해 최고의 연출력을 입증한 김석운 감독과 서인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오는 4월 14일 수요일 밤 9시, JTBC에서 첫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이재원, JTBC '시지프스 : the myth' 특별출연, 그 이상의 몰입도 선사 김병철-조승우 악연의 중심, 긴장감 증폭"

이재원, 주식 대박-공포, 생동감 있는 감정 연기로 스토리 몰입도 높였다

배우 이재원이 JTBC '시지프스 : the myth'에서 특별출연 그 이상의 몰입도를 선사했다.

이재원이 어제 방송된 '시지프스 : the myth' 8회에서 증권회사 직원 '김동현'으로 등장했다.

김동현은 미래에서 온 시그마가 현재 세상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인물로 이재원은 김동현의 감정 변화를 통해 시그마의 악한 내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극의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현과 시그마의 길고 긴 인연이 그려졌다.

핀드매니저였던 동현은 자신의 고객인 시그마가 비현실적인 수익을 내자, 덩달아 재산을 불리며 시그마를 은인으로 여기게 됐다.

이후 동현은 시그마의 부탁대로 김한용과의 자리를 알선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테술을 조종하는 계획에 동참한 것. 동현은 시그마 덕분에 재벌이 되는 등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했지만, 점차 시그마의 섬뜩한 감제를 느끼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결국 동현은 "한테술한테 알려줘야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망, 뒤늦게 동현의 집을 찾은 태술은 그곳에 남겨진 그림에서 시그마의 거처를 찾아냈다.

이처럼 이재원은 시그마의 최측근이자 그의 서사에 중심에 선 인물로 한테술을 위협하는 상황을 전개하며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풀어냈다. 특히 이재원은 잠깐의 등장에도



주식 대박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부터 '절대 악' 시그마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생동감 있

게 그리며 스토리에 몰입도를 더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최만식/기자

10년 만에 한일전이 돌아왔지만..K리그, 태극전사 차출을 어찌 하오리까?



10년 만에 한일 친선 A매치가 돌아왔다.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25일 요코하마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제대회 경기가 아닌 순수한 평가전 형태의 한일전은 2011년 8월 삿포로에서 열린 경기(0-3 한국 패)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펼쳐질 A매치라 더 특별하다. 그러나 고민은 계속된다. 태극전사 차출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코로나19 시국에 한해 '5일 이상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구단은 A매치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임시규정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협회가 정부와 방역당국을 적극 설득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일주일로 줄이고, 형태도 코트 격리로 조정했으나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표팀은 20~21일 K리그 경기를 마친 뒤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돼 출국했다가 26일 귀국한다. 그 후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 센터(NFC)로 이동해 시작될 격리는 다음달 1일 끝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K리그 일정이다. 4월 2일 포항 스틸러스-대구FC전을 시작으로 K리그1(1부) 7

라운드까 재개된다.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고, A대표팀 예비엔트리에 10명 이상 속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4월 3일 성남FC와 원정경기가 잡혀있다. 정상 전력을 구축할 수 없다. 상황에 따른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K리그 관계자들은 "협회의 의지를 확인했으니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들의 긴밀한 논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4월 말 예정이던 2021 아시아축구 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가 6월로 연기돼 탄력적인 스케줄 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해외파 소집도 녹록치 않다. 대표팀 소집 규정에 따라 협회는 이미 이달 초 손흥민(토트넘), 황희찬(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등 주요 유럽파의 소속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격리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영국과 독일은 10일, 프랑스는 일주일일 요구한다. 손준호(산둥 루닝), 김민재(베이징 궈안), 김신욱(상하이 선화) 등이 뛰는 중국은 14일의 시설격리와 7일의 자가격리를 실행하고 있다.

정동희/기자

안동과학대 배드민턴부, 올해 첫 대회 우승 "희망찬 출발"

전국동계대학·실업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복식·혼합복식 우승

안동과학대 배드민턴부는 3월 1일부터 8일까지 경남 밀양에서 열린 2021 회장기 전국동계대학실업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식, 혼합복식, 여자복식에서 우승, 여자단식에서 2위, 여자복식과 여자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알렸다. 혼합복식 최유범-성지영조는 결승에서 최현호-이지은조에게 2대0으로 이기며 대학부 최강 혼합복식조의 위엄을 보였다. 여자단식에서는 안동과학대 김빛

나, 성지영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올라 김빛나 선수가 우승했으며 여자복식에서는 김빛나-이나원조가 윤다현-이세은조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중배 안동과학대 배드민턴부 감독은 "지난 해 마지막 대회에서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이번 대회는 경기 수가 많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뛰여 준 선수들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세기/기자



'받은 만큼 돌려준다' 슈퍼스타 추신수, 등번호 양보한 이태양에 '통큰 선물'

11일 부산 사직구장. 롯데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를 마친 SSG 랜더스 선수단 사이로 건강한 체격의 사내 한 명이 섰다. 등번호 17번을 단 사내는 다름 아닌 추신수. 지난달 입국 후 경남 창원 모처에서 2주 자가 격리를 했던 추신수는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이날 선수단에 합류하기 위해 부산으로 달려왔다. 경기 후 추신수는 김원형 감독 및 코치진, 선수단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추신수는 인사말에서 "경험을 쌓으러 한국에 온 게 아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기기 위해 왔다"며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사를 마친 추신수는 자신에게 등번호 17번을 양보한 투수 이태양에게 다가갔고, 이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다. 선물을 받은 이태양은 이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추신수가 선물한 것은 고급 시계 브랜드 제품. 시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거액의 상품이었다. 추신수가 이태양에게 선물을 전한 것은 등번호 17번을 양보해줬기 때문. 추신수가 SSG와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태양은 구단 관계자에게 자신이 달고 있던 17번을 양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빅리그로 도약할 때까지 17번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던 추신수에게 '큰 선물'이었다. 추신수는 이태양에 선물을 전한 것을 두고 "내게 17번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어릴 때부터 내 이름 뒤에 항상 17번이 있었다"며 "선수에게 등번호의 의미가 크기에 내가 말하기 조심스러웠는데, 이태양이 먼저 양보해줬다. 고마운 마음에 미국에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선 (등번호를 양보해준 선수에게 선물하는 게) 흔한 일"이라며 "이태양에게도 17번이 의미가 있

는 번호라면 나도 어쩔 수 없었지만, 흔쾌히 양보를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내가 좋아하는 붉은색 모델이 있길래 미국에서 준비를 해왔다. (선물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고마운 마음"이라고 이태양에게 재차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교롭게도 'SSG 선수' 추신수의 첫 출발은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됐다. 고교 시절 이태양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로 꼽혔던 추신수에게 남다른 감회가 생길 만한 장소. 추신수는 "삼촌(박정태 전 코치)이 이곳(사직구장)에서 야구를 했다. 밤 먹듯 들락날락 했던 곳이다. 경비실에 계산 분도 알 정도다. 많은 선배님들을 보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운 굉장한 소중한 곳. 처음 선수단에 합류하는 곳이 사직구장이라고 들어 더 설레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에 올 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다시 찾으니 20년 동안 달라진 모습이 생소하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감상은 잠시 뿐, 추신수는 곧 SSG에서의 성공을 노렸다. 그는 "운동 선수라면 (우승은) 누구나 원하는 자리고, 내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다. SSG의 제의를 수락한 것도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라며 "주변에선 '빅리그에서 우승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미국에서 못했지만 한국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밝혔다. 추신수는 "미국에서 20년 간 야구를 하면서 (국내 팬들이) 추신수를 잘 모르고, 가까이 하기 쉽지 않았다.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됐다. 한 국에 돌려드려 제 더 많다. 건강한 몸으로 올 시즌 144경기를 치르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라고 다짐했다.

남궁영기/기자



'만 17세' 프로 데뷔 FC서울 강성진, "1분이든 90분이든 팀 돕고파"

강성진(17, FC서울)이 K리그의 새 역사를 썼다. FC서울 구단 역사상 첫 준프로 선수이자, K리그1 통산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운 강성진(만 17세 11개월 12일로 기록 달성)이 K리그 데뷔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강성진은 지난 3월 1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2021 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56 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강성진은 "어릴 때부터 프로에서 뛰는 상상을 항상 해왔었는데, 프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돼 너무 좋고 경기장에 있는 동안 너무도 설렘"이라며 "프로 데뷔 소감을 남겼다. 이어 "FC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구단에서 데뷔를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강성진은 이날 경기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이에 강성진은 "아쉽게 팀이 승리하지 못해 아쉽다.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골 넣을 수 있는 장면도 있었는데 골을 넣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앞으로 경기에 1분을 뛰든 90분을 뛰든 팀에 항상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또한 경기장에 들어서면 항상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도록 성장하

고 발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K리그1 통산 최연소 출전이라는 기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다. 믿어 주신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선생님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FC서울 구단 역사상 첫 준프로 선수로 기록을 남긴 강성진은 "FC서울 최초 준프로 계약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감독님 코칭스태프, 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오산고(FC서울 U-18) 친구, 후배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큰 책임감이 부여됐다고 생각한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말을 남겼다.

전순희/기자



김정태 신임 회장의 다짐 "KLPGA를 세계로!"

"KLPGA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김정태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1 KLPGA 정기총회에서 KLPGA 제14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취임식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연금제도 도입, 다양한 수익 사업 발굴, 열린 협회 만들기 등 다양한 약속이 나온 가운데, 김 회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세계화'였다. KLPGA 투어는 세계 최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투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들도 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면, 선수들의 실력과 두터운 선수층에 허를 내두를 정도다. 여기에 KLPGA 투어를 거쳐 LPGA 투어로 진출한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KLPGA 투어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이미 KLPGA 투어 대회가 베트남, 대만 등 해외에서 열리고 있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KLPGA 투어 해외 대회들이 취소되면서, KLPGA 투어의 세계화 노력은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신임 회장은 다시 한 번 세계화를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아시아 골프리더스포럼(AGLF)의 초대 회장을 맡고 있고, 그만큼 아시아 골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만큼 세계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가 아시아 및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제14대 회장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KLPGA는 국내를 넘어 진정한 아시아 골프 허브로 도약하고, 세계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을 맞았으며"면서 "회원과 협회의 국제적 역할 및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



할 것이다. 또 아시아 각국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개최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KLPGA가 세계적인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LPGA 선수들이 비수기 동안 해외에서 더 많은 시합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시아 중심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서 "(해외에서 대회) 하면 선수들도 시합을 많이 펼 수 있고, KLPGA는 공동 주관사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 나아가 세계 투어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KLPGA 대회도 국내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아시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로의 진출은 자연스럽게 세계투어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LPGA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김정태 회장 체제의 KLPGA가 앞으로 4년간 어떤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만식/기자

제 목 해내겠다는 김소담, 첫 챔피언 출전에서 약속 지켰다

김소담이 팀의 기사회생에 큰 몫을 해냈다. 청주 KB스타즈는 지난 11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과의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82-75로 승리했다. 원정길에서 시리즈 0-2로 밀리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KB스타즈는 안방에서 마침내 첫 승을 거두며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활약에 문득 김소담이 과거에 남겼던 한 마디가 떠올랐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KB스타즈는 봄 농구 준비해야 했던 시점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조류의 조기종료 사태에 아쉽게 마점표를 찍어야 했다. 데뷔 시즌 플레이오프 1경기 38초 출전이 불농구 경험의 전부였던 김소담은 2019-2020시즌 중 트레이드로 KB스타즈에 합류하면서 그 경험치를 늘릴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 기회를 이번 시즌까지 미루게 됐던 것이다. 김소담은 1년 전 본지 연재 코너였던 <나의 이름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봄 농구 무대에서 뛰었던 건 신인 때 잠깐 맞은 게 전부다. 다음 시즌에는 단 1초가 주어지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꼭 내 몫을 해내겠다." 그렇게 김소담은 자신에 내뱉은 말을 1년 만에 지켰다. 김소담은 3차전 승리 이후에도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나 기회는 오는 거라 생각한다. 혹은 기회가 한 번 지나가더라도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된다. 출전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다. 물론 많이 뛰면 좋다(웃음)"라며 침착한 자세를 보였다. "다음을 만들어낸 KB스타즈는 오는 13일 다시 안방에서 열린 4차전에서 또 한 번 필승을 다짐한다. 기자회견에서 성공하 만큼 우승에 도전하려면 4차전까지 승리하고 시리즈를 최종 5차전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에 김소담도 "양 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볼러 날 곳은 없다. 우리 팀은 5차전을 가는 게 목표다. 다시 힘을 합쳐서 4차전을 이기고 용인으로 가겠다"라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최재은/기자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심포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

